

伽耶文化圈遺蹟精密調查報告書

慶南 固城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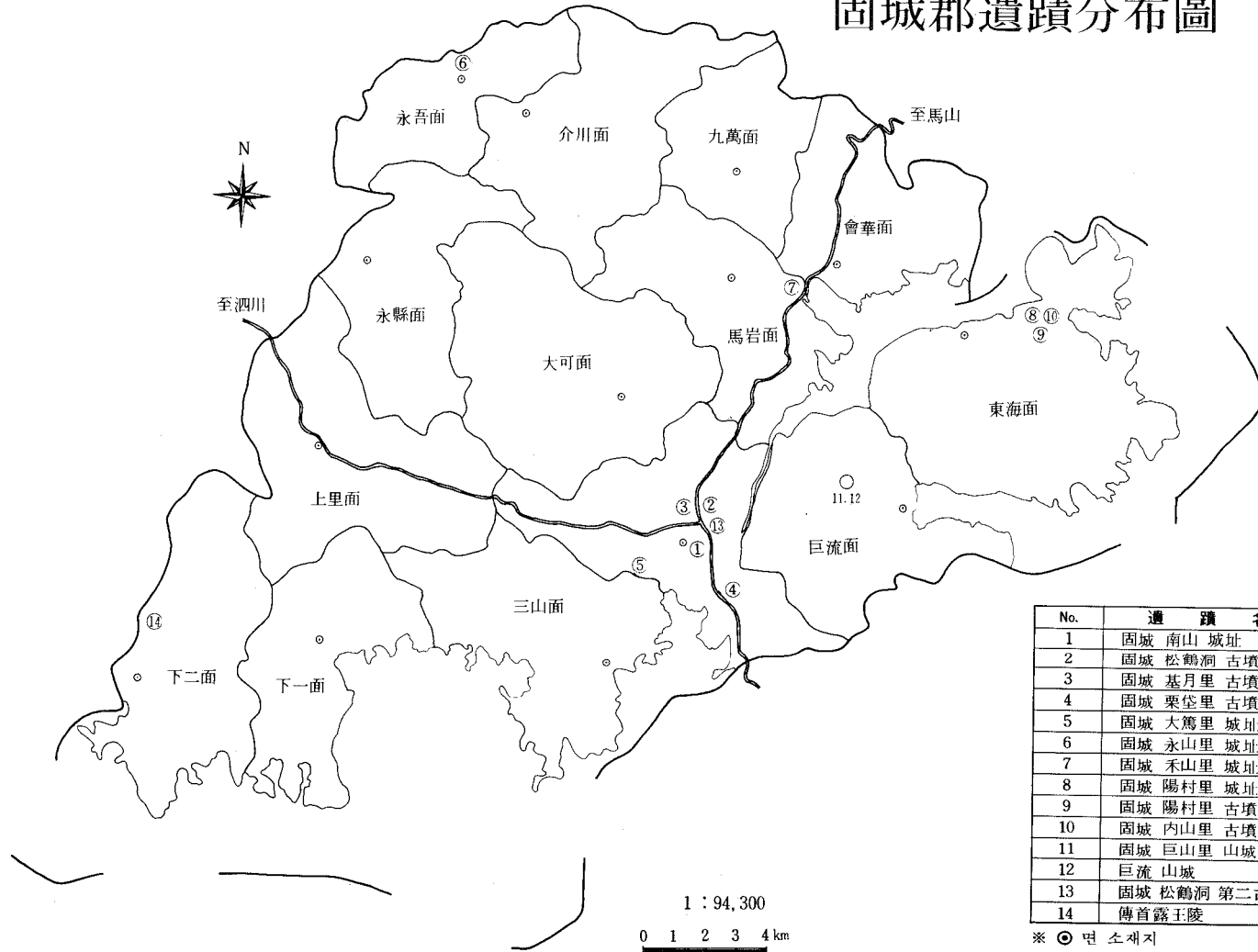
1984 . 12 .

東亞大學校 博物館

目 次

1. 固城 南山 城址·····	5
2. 固城 松鶴洞 古墳群·····	9
3. 固城 基月里 古墳·····	15
4. 固城 栗垆里 古墳群·····	19
5. 固城 大篤里 城址·····	23
6. 固城 永山里 城址·····	27
7. 固城 禾山里 城址·····	31
8. 固城 陽村里 城址·····	35
9. 固城 陽村里 古墳群·····	39
10. 固城 内山里 古墳群·····	43
11. 固城 巨山里 山城·····	47
12. 固城 巨流山城·····	53
13. 固城 松鶴洞 第2古墳群·····	61
14. 傳首路王陵·····	65

固城郡遺蹟分布圖



No.	遺蹟名
1	固城 南山 城址
2	固城 松鶴洞 古墳群
3	固城 基月里 古墳群
4	固城 栗岱里 古墳群
5	固城 大篤里 城址
6	固城 永山里 城址
7	固城 禾山里 城址
8	固城 陽村里 城址
9	固城 陽村里 古墳群
10	固城 內山里 古墳群
11	固城 巨山里 山城
12	巨流 山城
13	固城 松鶴洞 第二古墳群
14	傳首露王陵

※ ① 면 소재지

固城南山城址

1. 時 代

伽倻時代

2. 所 在 地

慶尙南道 固城郡 固城邑 水南洞 370-2

3. 所有者 住所·姓名

固城郡 固城邑 東外洞 341 심기대

4. 關係資料

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二 固城縣山川條에 「南山 在縣南二里 有古城基址」라고 記錄하고 있고 固城邑誌에도 마찬가지로.

5. 沿革 및 事蹟

固城邑의 南쪽에 位置한 南山(표고 90m) 頂上部位에 橢圓形 테괴식으로 築造된 土城址이다. 現存하는 部位는 얼마되지 않으나 當時에는 固城灣에 가깝도록까지 길게 連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位置的으로 이곳에서 城廓이 築造될 수 있었던 것도 固城邑에 近接하고 있으면서 낮은 野山이지만 固城平野와 固城灣, 堂項浦灣을 照望하기에 알맞은 데다가 이 城址의 南斜面이 原始住居에 적합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城의 築造年代는 確實하지 않지만 隣接한 固城貝塚, 栗垵里貝塚, 松鶴洞古墳 등의 諸遺蹟과 歷史的으로 小伽倻의 中心地에 位置하고 있다는 점과 城內에서 수집되는 각종 土器片의 特徵 등 諸般要素를 생각할 때 伽倻初期의 어떤 聚落과 關係되는 城廓이라고 推定되기도 한다.

6. 遺蹟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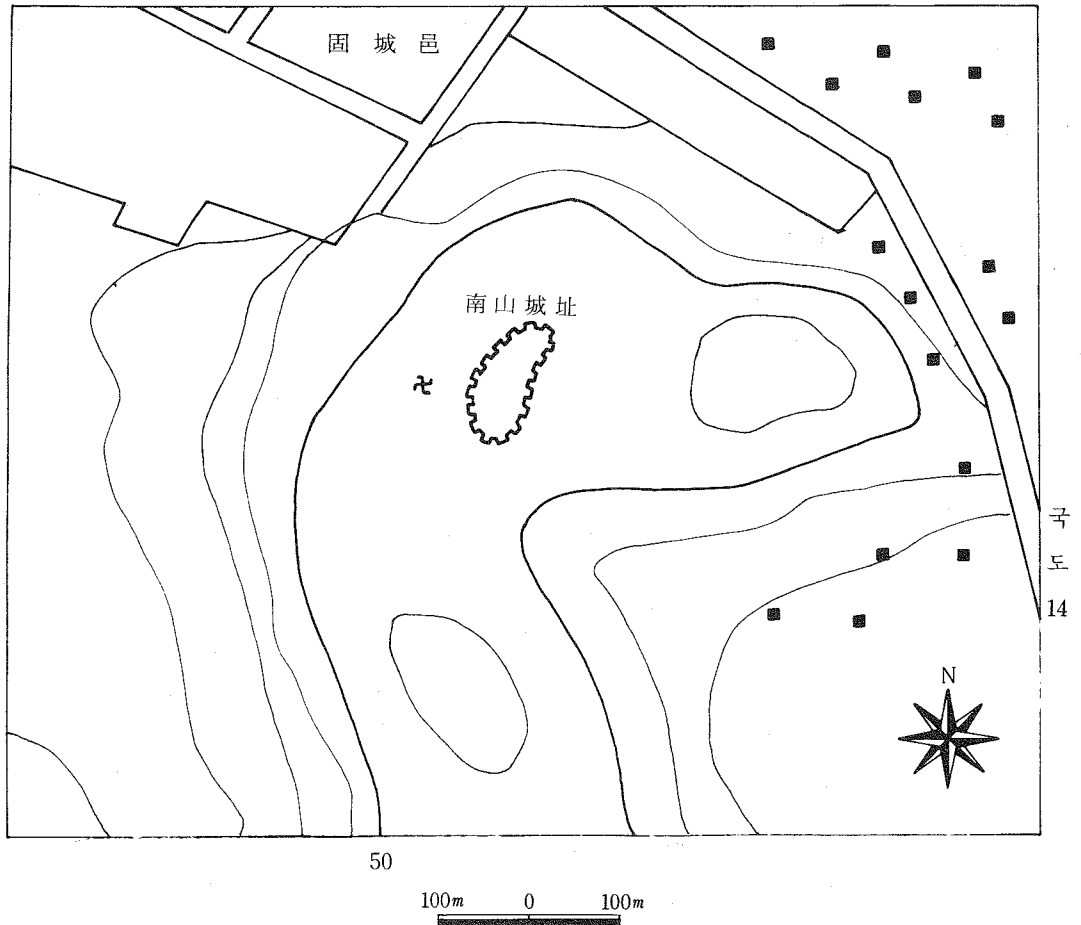
현재 城內는 밭으로 開墾되어 묘목과 채소가 栽培되고 있으며 城밖에도 一部地城을 除外하고는 耕作地로 使用되고 있다. 殘存城廓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주로 밭둑이며 半月形과 같이 생긴 南斜面은 過去 聚落地가 있었던 곳으로 느껴진다. 城廓의 築造手法은 外形上으로는 흙으로서 內托하는 形式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

지만 確實하지는 않으며 良好한 곳은 높이 1m 内外로 약 500m 정도의 둘레가 남아 있다.

7. 調査者 意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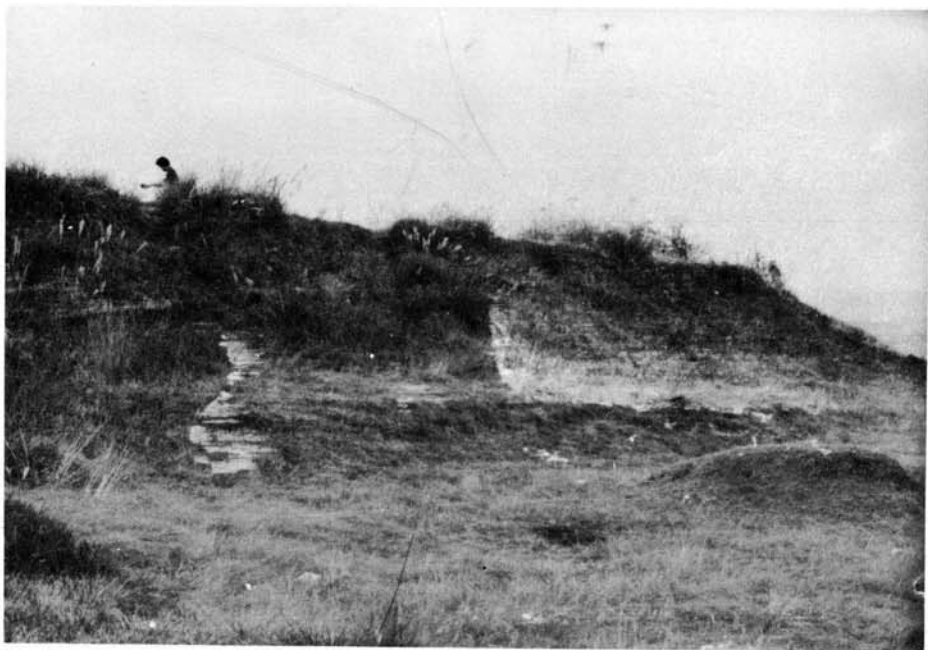
固城은 본디 古自彌陳國으로 후에 小伽倻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時期의 聚落, 또는 城邑이 바로 이 南山城址를 中心해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古代 城邑國家를 研究하는데 貴重한 資料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城内外 주위를 發掘, 調査하여 그 性格을 糾明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思料되며 調査所要豫算은 5,000 만원 정도로 推定된다.

8. 略 圖





대독성지에서 바라본 원경



북쪽 성벽 근경



성지 내부 전경

固城松鶴洞古墳群

1. 時 代

伽倻時代

2. 所 在 地

慶尙南道 固城郡 固城邑 松鶴洞 山473-5

3. 所有者 住所·姓名

國 有

4. 管理者 住所·姓名

固城郡

5. 沿革 및 事蹟

固城邑의 東北쪽에 位置하는 小伽倻의 王陵이라고도 傳해오는 大型 古墳群이다. 固城邑 周圍 작은 丘陵에는 大小 古墳群이 北에서 南으로 連結되다시피 줄지어 分布되어 있는데 이를 行政區域上 松鶴洞, 基月里, 栗垈里 古墳群이라고 區別지워 말하고 있으나 사실상 하나의 古墳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 古墳群에 대한 確實한 沿革은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다만 日帝時代に 盜掘되었다는 것만 傳해지고 있을 뿐이다. 現在 松鶴洞 古墳이 位置한 곳을 舞鶴山 또는 舞妓山이라고도 하는데 舞妓山이라는 名稱은 固城邑誌 山川條의 「俗傳昔固州刺史 携妓歌舞於此 故因名之」라 한데 기인한 것이나 古墳에 대한 言及은 없다.

6. 遺蹟現況

現在 松鶴洞古墳이라고 하는 것은 舞鶴山 頂上에 位置한 2基의 大型墳을 비롯하여 그 서쪽으로 分布하고 있는 4基의 古墳을 合한 6基의 古墳群을 말한다. 그 가운데 頂上部位에 있는 2基는 東西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西쪽의 것이 크다. 그러나 모두 頂上부분을 盜掘 당하였으므로 서쪽의 것은 蓋石이 일부 露出되고 있으며 동쪽의 것은 평평하게 원형의 대지를 이루고 있다. 이 두 古墳은 본디 山頂上部를 切開해서 遺構를 配置한 것이 아니고, 현재보다 낮은 山頂上部에 遺構를 設置하

고 그 위는 높게 成土한 것이라고 느껴지며 露出된 蓋石의 位置로 보아서는 封土 속의 遺構는 多槨式일 가능성이 많다. 두 古墳 모두 주위는 原形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封土 頂上部는 많이 깎여져 毀損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西쪽 大型墳 바로 아래 小型의 古墳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盜掘되어 封土는 없어지고 겨우 그 가장자리만 남아 있다. 또 서쪽으로 小型墳이 位置하고 있으나 주위 耕作地 開墾時 부분적으로 破損시켜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變形시켜 버렸다. 나머지 2基는 역시 서쪽으로 上, 下 나란히 配置되어 있는데 周圍 開墾과 封土 頂上部의 盜掘 등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方形墳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 비교적 大型에 屬한 圓墳이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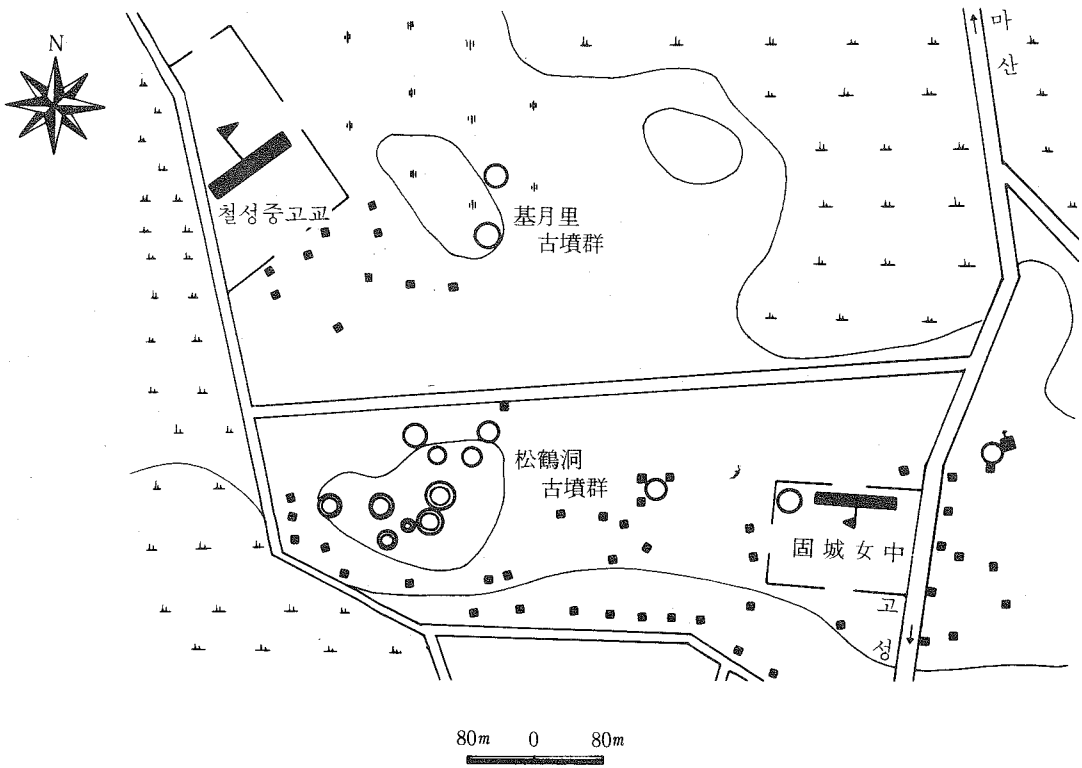
前記한 바와 같이 松鶴洞 古墳群은 日帝時代에 모두 盜掘되었으므로 當時 出土된 遺物과 遺構의 內容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特히 舞鶴山 頂上部位에 위치한 古墳은 固城地方에서는 가장 큰 封土를 갖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으며 이를 표본삼아 1960年 史蹟 第119號로 指定한 것이다.

7. 調査者 意見

伽倻地域의 古墳들이 日帝時代나 近代에 와서 많이 發掘調査되어 그 性格把握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固城地域의 古墳에 대한 調査例가 없어 그 特徵을 알 수 없는 것이 흠인데다가 대부분 盜掘 당하고 破壞되어 그 保存의 명분마저 없어져 가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이번 機會에 標本調査 및 整理發掘을 併行하여 이 地域의 古墳 性格把握은 물론이고 保存價值性 與否를 진단하여 補修整理 및 해제작업을 과감하게 實施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發掘 및 復原을 위한 所要豫算은 1억5,000만원 정도 必要할 것으로 추측됨.

8. 略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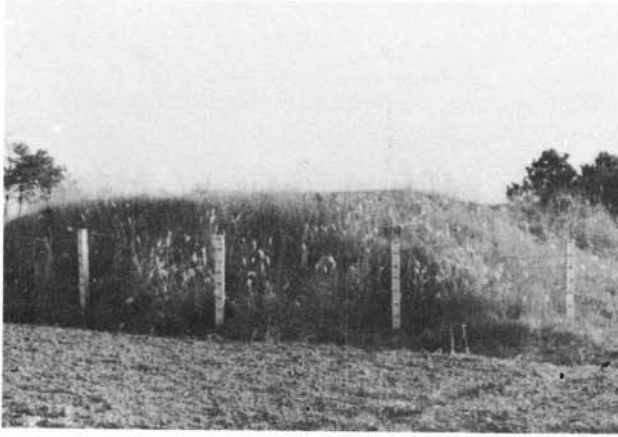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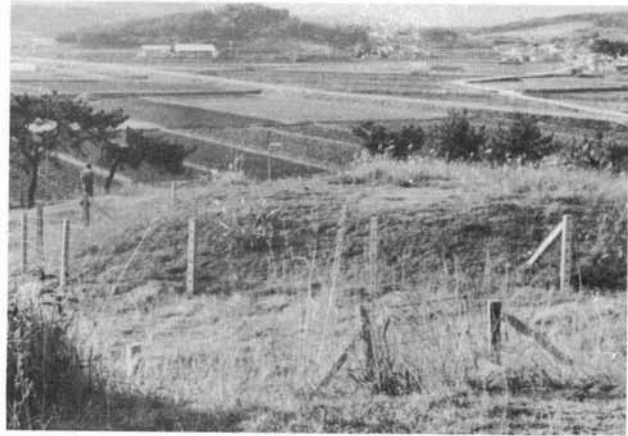
고분 1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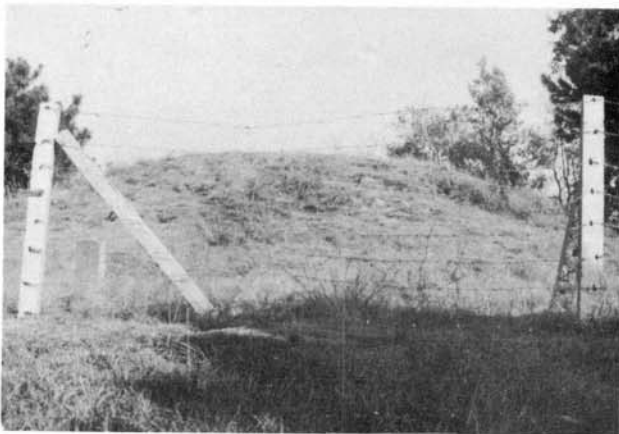
고분 1 정상



고분 2 전경



고분 3 전경



고분 4 전경

固城基月里古墳

1. 時 代

伽倻時代

2. 所 在 地

慶尙南道 固城郡 固城邑 基月里 233- 5, 237- 2

3. 所有者 住所·姓名

① 固城邑 基月里 544 김태호 ② 固城邑 松鶴洞 286 노연현

4. 管理者 住所·姓名

上 同

5. 沿革 및 事蹟

松鶴洞 古墳群에 連結해서 北쪽으로 破損된 古墳 2 基가 있다. 過去에는 모두 40餘基에 달하였다고 傳하나 지금은 그 위가 모두 耕作地로 開墾되어 버렸다. 역시 松鶴洞古墳과 함께 伽倻時代의 것으로서 大小型古墳이 分布하고 있었으나 現存하는 것은 大型에 屬했다고 판단되는 2 基가 南北으로 나란히 配置되어 있다.

6. 遺蹟現況

過去 日本人들이 盜掘한 古墳이므로 原狀維持가 어려운 데다가 후에 다시 古墳 주위에 開墾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破損시킨듯 하다. 본디 古墳이 位置했던 곳은 다른 伽倻地方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낮은 野山의 頂上을 利用하여 封土를 形成한 것이었으나 盜掘과 개간으로 因해 原狀이 破損된 것이다. 現存하는 2 基의 古墳도 封土위에까지 耕作이 行해지고 있어서 關心있게 보지 않으면 古墳인지의 與否도 파악하기 힘들 程度이다. 南北으로 배치된 2 基의 古墳中 南쪽의 것은 直徑 20.9m, 높이 2.7m 의 比較적 大型墳에 屬하는 것으로 南쪽에는 盜掘구덩이를 메꾼 것으로 보이며 頂上部의 밭에는 高杯片, 壺形土器片이 간혹 발견되는데 그 特徵은 전형적인 伽倻土器이다. 北쪽의 것은 直徑 16.8m 높이는 前者보다 작은 規模를 갖고 있으나 역시 大型이었다고 생각되는데 封土部位가 개간시에 많이 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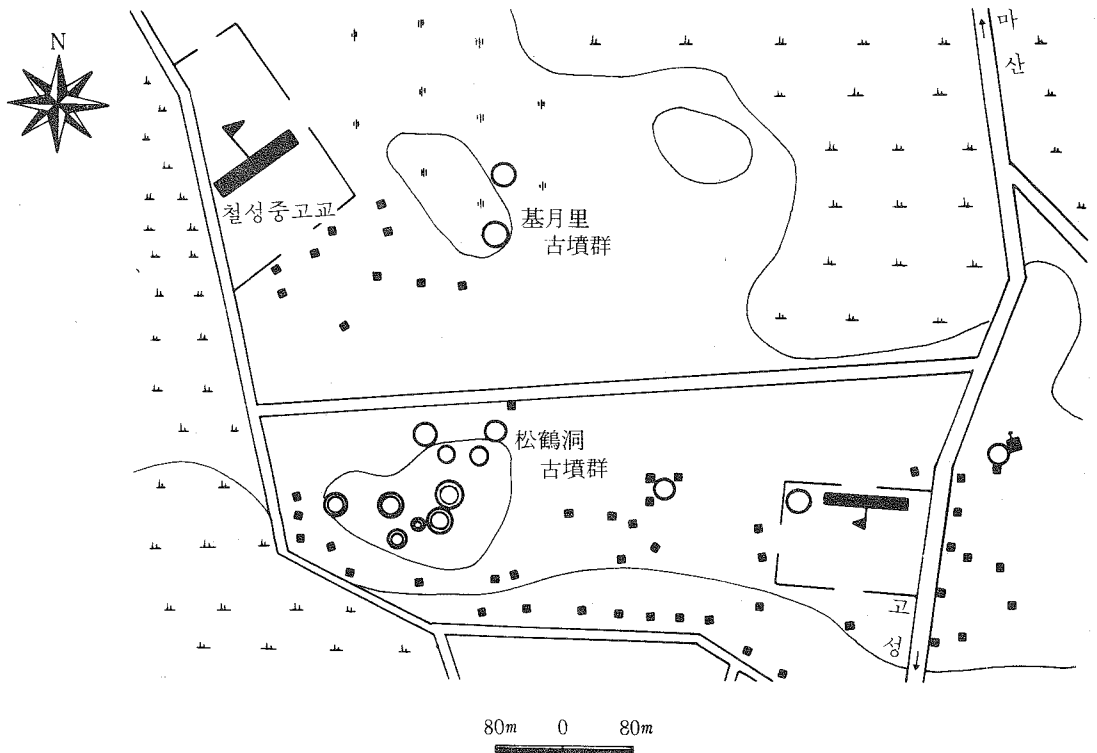
損되었기 때문에 現在와 같은 규모를 가졌다고 느껴진다. 이 古墳도 이미 盜掘된 것으로 地下에 遺構가 殘存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을 程度로 破壞가 甚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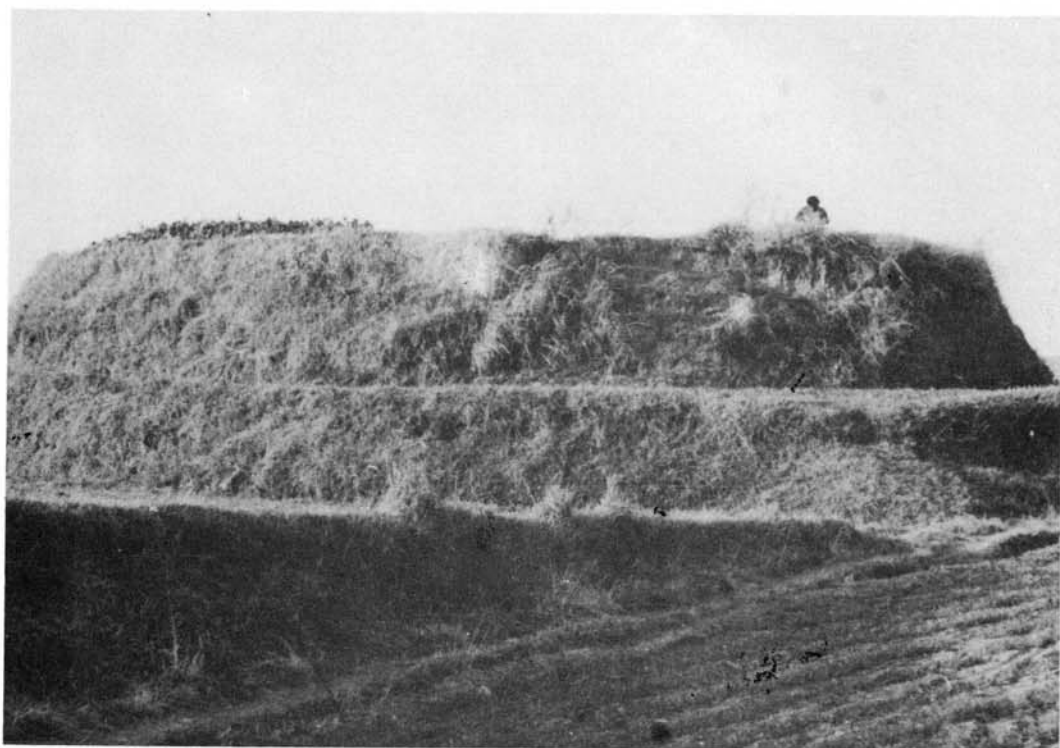
基月里 古墳群이 位置한 곳을 새터(新基) 부락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마을이 들어선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으며 新基部落 自體도 古墳위에 세워진 것으로 推定된다.

7. 調査者 意見

遺構의 殘存有無부터 確認한 後에 그 保存與否를 論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調査費는 2,000만원 정도 必要할 것이다.

8. 略 圖





고분 1 전경



고분 2 전경

固城栗垈里古墳群

1. 時 代

伽倻時代

2. 所 在 地

慶尙南道 固城郡 固城邑 栗垈里 山707

3. 所有者 住所·姓名

韓國電力 固城變電所

4. 沿革 및 事蹟

固城邑의 東南쪽 野山一帶에 位置한 古墳群이다. 역시 伽倻時代의 古墳으로 모두 4基가 있었는데 그중 1基는 1972年 2月 韓國電力固城變電所 新築工事 時에 破損되어 東亞大學校에서 整理, 調査하였다. 나머지 3基는 殘存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2基는 封土의 一部分이 두 古墳사이에 固城, 忠武間 우회도로가 開設되면서 끊어졌다. 1972年 2月 破壞墳 整理調査 結果 遺構의 正確한 형태는 알 수 없었으나 주위에 흩어진 石材로 미루어 보아 石槨墳이었던 것은 事實이었고 土器片과 紡錘車 등의 收拾遺物은 伽倻時代의 特徵을 가진 것이었다. 당시 파괴된 古墳은 他古墳이 野山 頂上部에 位置한 것에 비해서 낮은 기슭에 位置한 것으로 이미 日本人에 의해 盜掘된 것이었다. 때문에 나머지 古墳들도 伽倻時代의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다.

5. 遺蹟現況

遺蹟은 固城邑 中心地에 位置한 南山에서 동쪽으로 뻗은 낮은 野山 頂上部와 그 기슭에 分布하고 있는데, 現存하는 3基 모두 이미 盜掘된 것이다. 그중 頂上部位에 있는 2基는 大型墳이었으나 南北으로 中間에 道路가 開設되면서 동쪽편에 있는 것은 工事當時 石槨이 一部 露出된 것을 다시 묻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封土의 $\frac{1}{3}$ 가량이 떨어져 나간 듯하며 西쪽의 것은 封土 아래부분의 一部가 破失되었다. 그리고 2基 모두 松林이 우거진 山위에 位置하므로 山頂上인지 封土 頂上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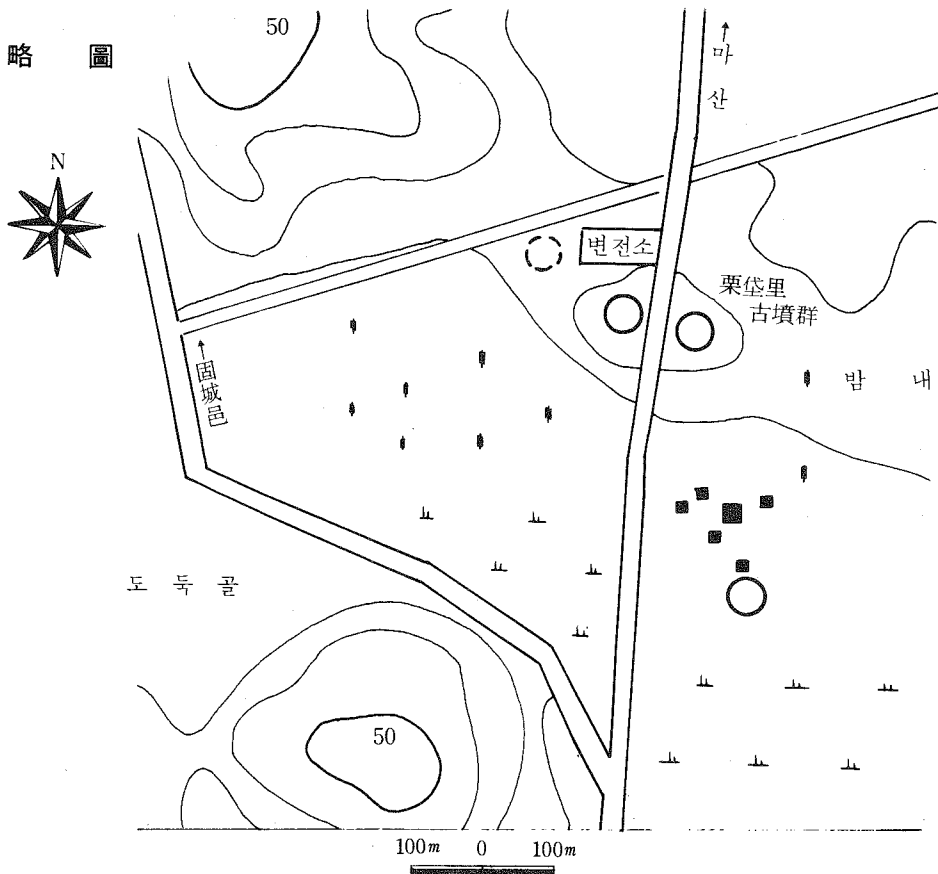
區分하기 어려울 정도인데다가 過去 盜掘時 封土 頂上部位를 파괴시켰으므로 더욱 甚하게 느껴진다. 나머지 1基는 山기슭의 마을 주위에 位置하고 있는데 비교적 封土는 잘 남아 있으나 역시 盜掘되었으므로 原狀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盜掘當時 蓋石을 遺構內로 埋沒한 끝이 마치 立石처럼 封土의 中間部位에 박혀있는 것이 보인다. 3基 모두 封土直徑은 약 15m, 높이는 1.2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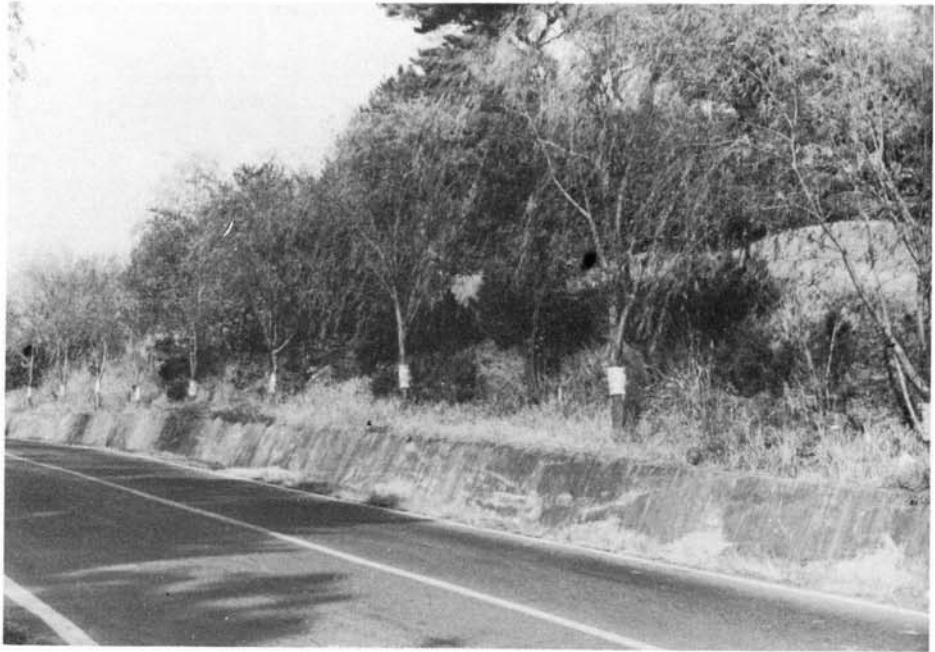
이 古墳群도 松鶴洞, 基月里 古墳群등과 함께 거의 같은 時期에 築造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6. 調査者 意見

역시 過去 盜掘된 古墳이긴 하지만 점차 毀損되면서 그 形狀조차 구별하기 어렵게 되어지고 있으므로 이번 機會에 調査(推定 所要豫算 5,000만원) 整理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思料됨.

7. 略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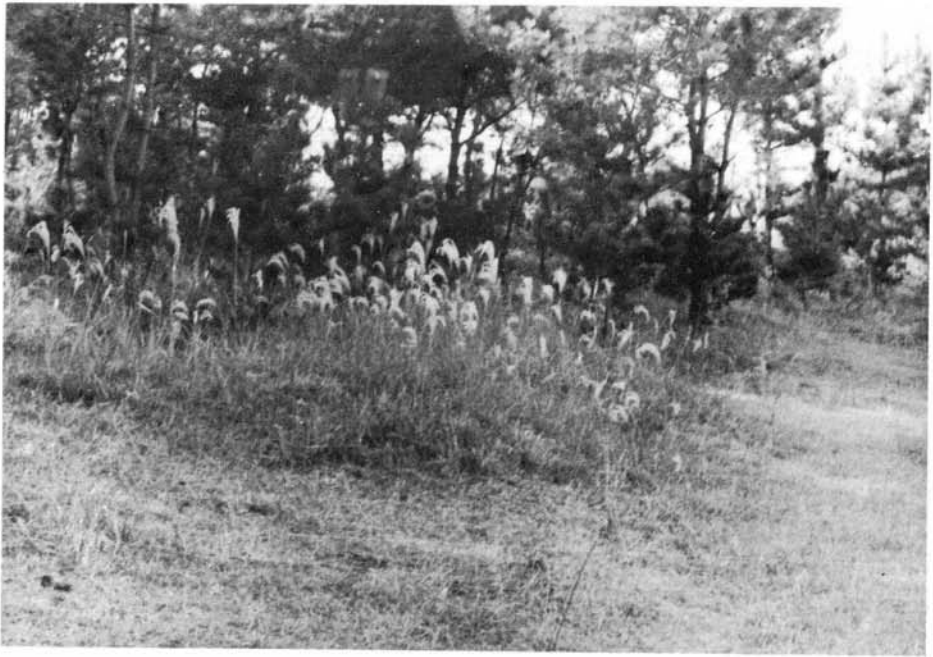




도로에서 바라본 고분군 전경



고분 1 전경



고분군 전경 1



고분군 전경 2

固城大篤里城址

1. 時 代

三國時代

2. 所 在 地

慶尚南道 固城郡 三山面 大篤里 山10-1

3. 所有者 住所·姓名

固城郡

4. 管理者 住所·姓名

上 洞

5. 關係資料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二 固城縣山川條에 「佛巖山 在縣西二里 有土城古基」라 하고 있다.

6. 沿革 및 事蹟

海拔 88m 의 佛巖山(萬年山) 8分 陵線上에 테외식으로 築造된 土城으로 築造年代는 확실하지 않다. 傳해오는 말에 의하면 先史時代부터 最近에 이르기까지 戰爭이 일어나면 항상 이 山에 軍人이 配置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確實한 記錄은 옛 土城터가 있다는 정도뿐이다. 다만 城內에서 無文土器片, 伽倻土器片이 간혹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伽倻時代 以前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7. 遺蹟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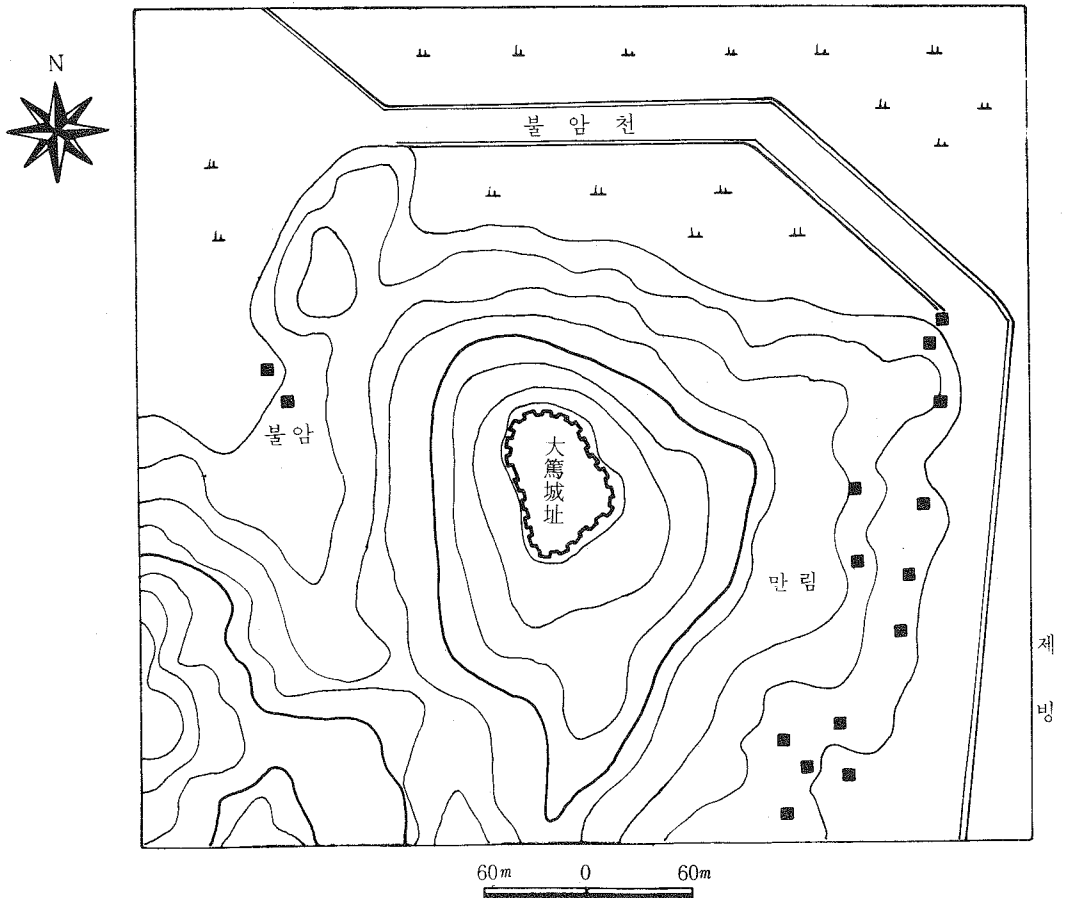
固城邑에서 西쪽으로 佛岩川을 사이에 두고 南北으로 長橢圓形을 이루는 佛岩山이 있는데 城址가 그 9分線上에 있다. 현재 城址에는 雜木이 우겨져 있고 南쪽에는 共同墓地처럼 民墓가 띄엄띄엄 들어서 있다. 城壁은 서쪽편에 비교적 잘 남아 있고 동쪽편과 북쪽은 耕作地 開墾과 水源池 擴張工事로 大部分 毀損되고 그 흔적만 남아있다. 城은 内外夾築手法으로 築造되었는데 良好하게 남아있는 南쪽의 경우 內壁의 城高가 1.5m 정도이며, 幅이 4~5m 에 이르는데 마치 內壕를 두른

듯하다. 現存 城壁은 약 800m 程度이고 入口가 南·北·西쪽에 各各 位置하고 있으나 固城邑 方向의 東쪽은 없다. 그것은 동쪽이 비교적 가파른 경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朴敬源先生의 慶尙南道 史前遺蹟遺物地名表 (考古美術 第二卷, 第四卷, 通卷九號 1961. 4)에 의하면 이곳에 石器時代의 遺蹟이 있다고 記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靑銅器時代의 遺物이 發見된 것으로 推定된다.

8. 調査者 意見

部分的으로 發掘 調査(經費 약 4,000만원)하여 그 性格을 確認한 後에 整理 補修하였으면 좋겠고, 固城郡에서 施行하는 水源池 擴張事業도 城壁쪽으로 行하지 않았으면 싶다.

9. 略 圖





도로에서 바라본 원경



내부전경 1



내부전경 2

固城永山里城址

1. 時 代

三國時代

2. 所 在 地

慶尙南道 固城郡 永吾面 永山里 山55

3. 所有者 住所・姓名

金 夔 兌

4. 關係資料

晉陽郡誌 卷二 驛院條

1. 「永昌驛 在州南五十二里 永善縣 昔有館 今廢」

2. 「永昌院 在州南五十二里 永善縣 永昌驛傍 古有館 今廢」

晉陽郡誌 卷一 屬縣條

3. 「永善縣 在州東南四十八里 本新羅一善縣 景德王 改尚善 屬固城郡 高麗初 改今名 顯宗時 來屬 至本朝置義倉 縣舊基 即今榆田洞也」

5. 沿革 및 事蹟

城山(표고 170.8m) 또는 탕근산이라고도 불리우는 野山의 9分 稜線上에 테괴식으로 土壘가 둘러져 있는데 確實한 築造時期는 알 수 없다. 다만 城內에서 발견된 土器破片들에 의하면 伽倻 또는 新羅時代에 築造된 城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이곳은 晉陽郡誌에 의하면 新羅時代에 一善縣이 설치되어 高麗時代에까지 계속되었으며 朝鮮時代에는 義倉과 驛·院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現在 이 주변에는 古墳群, 支石墓, 立石 등의 先史 및 三國時代의 유적들이 적지않게 分布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곳에 人類가 生活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6. 遺蹟現況

이곳은 晉陽郡의 文山과 固城邑의 사이에 位置하는데 도리어 文山에 가깝다. 때문에 永山이 晉州牧에 所屬되어 있던 時期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現在 城이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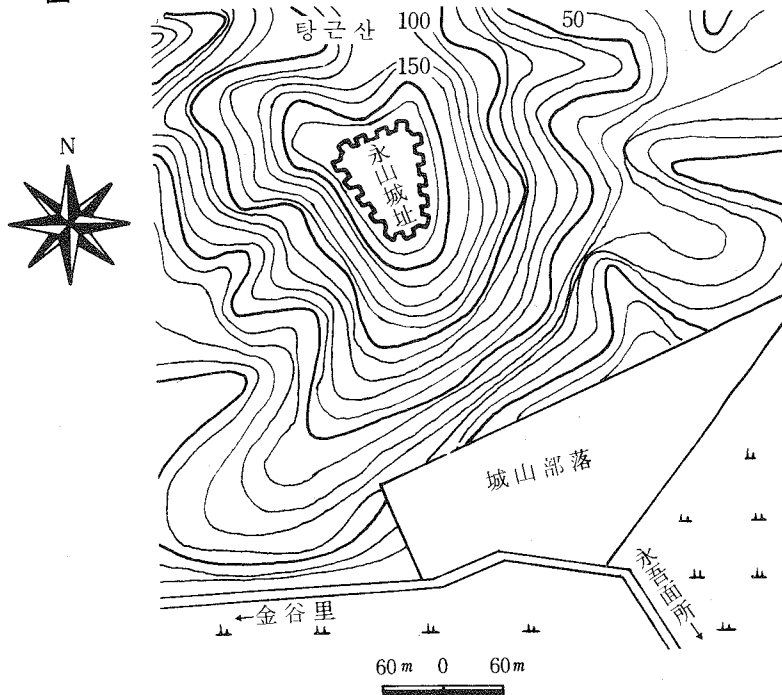
한 城山은 城山部落 뒷편에서 약간 南向하듯 기울어지는 급경사를 갖고 있으며, 前方에는 介川面과 永吾面에서 흘러내리는 永山川이 서쪽으로 흘러 晋州南江에 다다르고 그 流域에는 제법 넓은 平野가 形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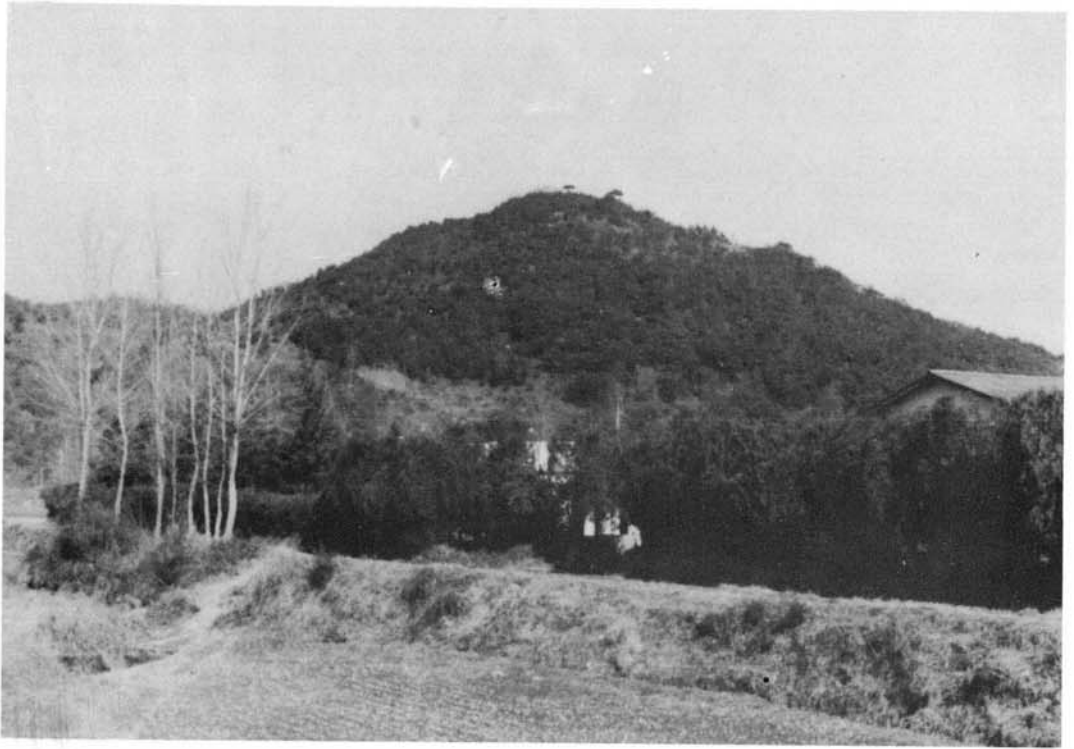
城址는 이 永山川과 平野를 조망하듯 城山の 頂上部에서 南쪽으로 9分 稜線까지 테를 두르듯 土壘를 形成하고 있는데 동쪽의 良好한 부분은 二重으로 된 계단상을 이루고 있으며, 西쪽은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이 城址의 경우는, 城内가 완전히 外部에 露出되는 築台와 같은 城壁을 가진 것이 特徵이고 建物址 같은 것은 確認되지 않고 있으나 入口는 南西쪽의 稜線을 따라 配置된 것이 아닌가 싶다. 城内一部는 밤나무 果樹園으로 使用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原狀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는 편이다. 規模는 둘레 800m, 幅 10m, 高 2~3m 程度이다.

7. 調査者 意見

性格을 把握할 必要는 있다고 느껴지나 現在의 狀態로 두어도 保存上의 큰 問題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사를 實施한다면 약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8. 略 圖





동쪽에서 바라본 원경



성지북쪽 내부전경

固城禾山里城址

1. 時 代

伽倻時代

2. 所 在 地

慶尚南道 固城郡 馬岩面 禾山里 山163

3. 所有者 住所・姓名

固 城 郡

4. 管理者 住所・姓名

上 洞

5. 關係資料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二 固城縣山川條에 「城山 在縣北二十四里 有古城基址」라 하였다.

6. 沿革 및 事蹟

確實한 築造時期는 알 수 없으나 記錄上으로는 옛 성터가 있다고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城址가 位置한 곳, 城內에서 蒐集된 土器片, 城壁아래에 있는 貝塚, 城의 形態등 諸特徵으로 미루어 보아 伽倻時代의 土城이라고 생각된다.

7. 遺蹟現況

堂項灣에 位置한 背屯의 西쪽편 城山 頂上에 있다. 海拔 100m의 城山은 西에서 東으로 뻗은 小丘陵으로 南·西·東쪽 기슭에는 民家가 들어서 있고 北쪽은 隣接한 山과 연결되어 있으며, 城內는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城은 北西쪽에서 南東쪽으로 半月形을 이루는 테외식 山城인데 外觀上으로는 土城처럼 보이지만 土石混築城인 것이 틀림없으며 동쪽으로 金海期에 該當하는 貝塚이 있다. 이 城은 軍事的인 目的보다는 伽倻前期人들의 生活聚落址라고 느껴지는데 城內뿐만 아니라 城外의 南西쪽 기슭에는 많은 住居址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특히 城山 주위의 背屯, 馬岩平野는 農耕하기에 알맞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가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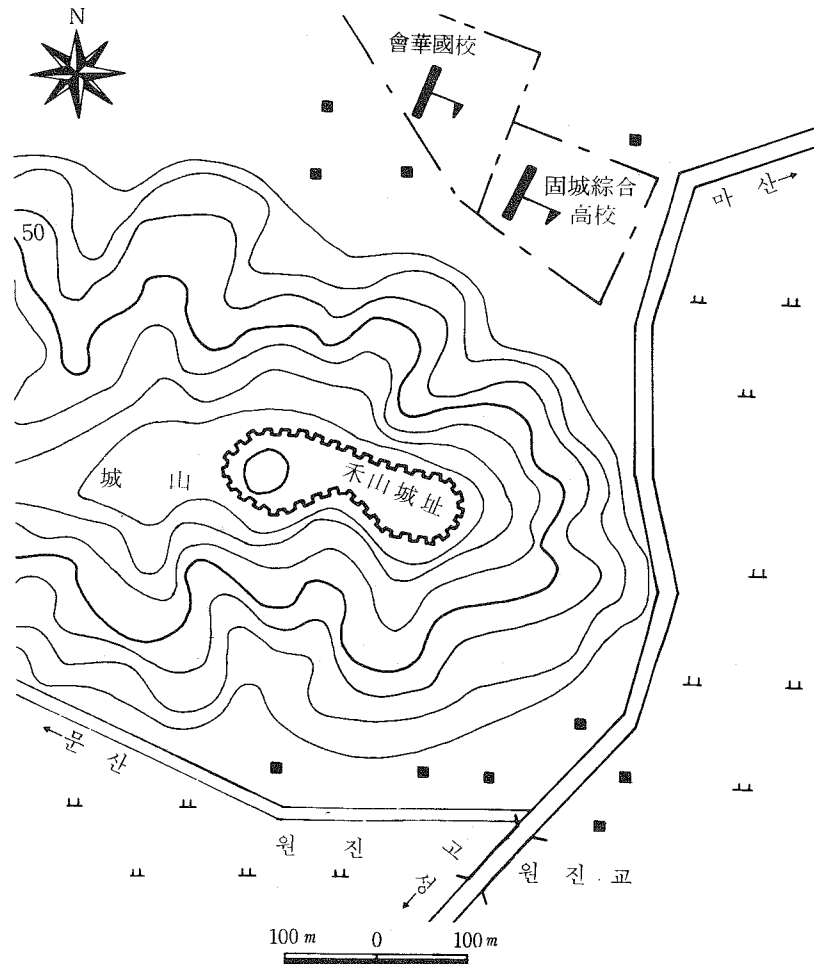
워서 고기잡이에도 적합한 곳이다. 때문에 馬岩平野에는 靑銅器時代에 該當하는 支石墓群이 分布하고 있어 伽倻以前의 이 地域歷史를 推定할 수 있다. 이 城의 모든 特徵은 昌原의 城山城, 鎭海의 子馬山城과 相互 잘 담고 있으며 둘레는 약 600m 정도이고, 良好한 狀態로 남아 있는 곳의 城壁 높이는 2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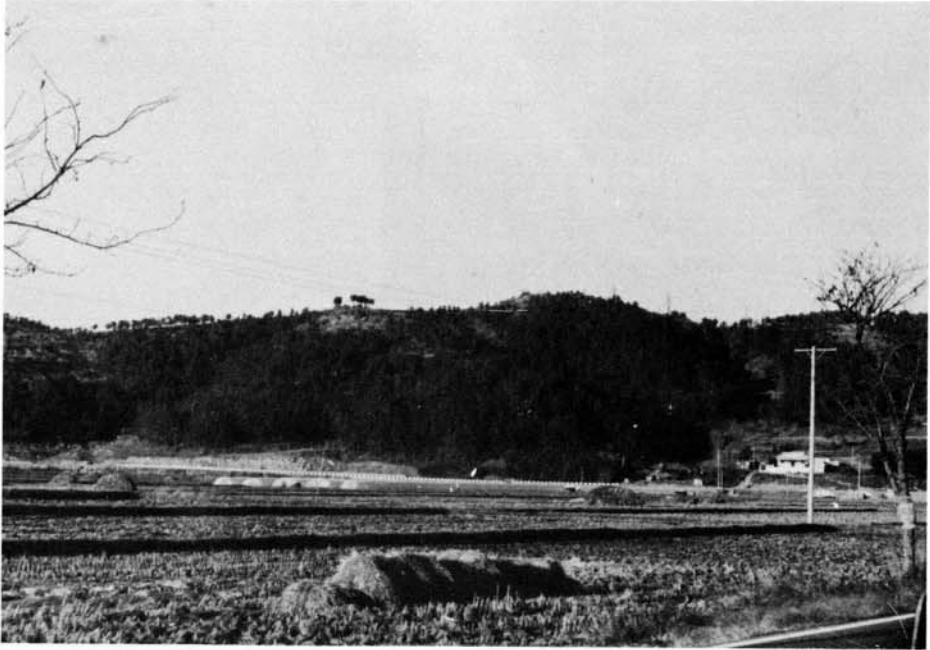
8. 調查者 意見

伽倻時代의 聚落址 遺蹟으로서는 그 代表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伽倻史復原을 위한 發掘調查 對象의 좋은 例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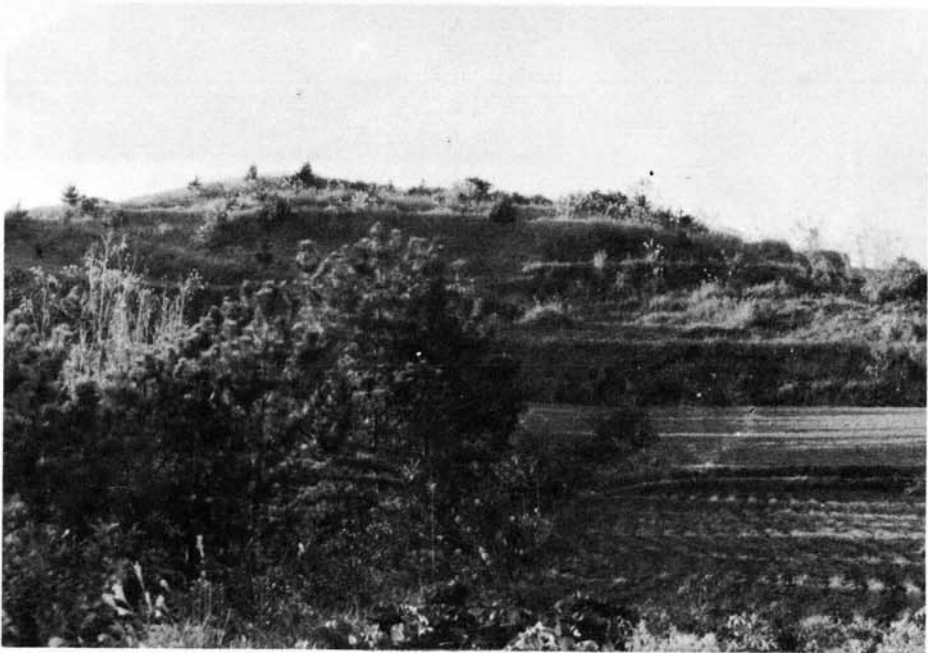
部分的으로 發掘調查(調查費 6,000만원 정도)하여 그 性格 糾明과 아울러 保存 可能도록 措處함이 타당하다고 思料됨.

9. 略 圖





남쪽 도로에서 바라본 원경



성지 정상부 전경



동쪽 내부 전경 1



북쪽 내부 전경 2



중앙 내부 전경 3

固城陽村里城址

1. 時 代

三國時代

2. 所 在 地

慶尙南道 固城郡 東海面 陽村里 176

3. 所有者 住所·姓名

固城郡 東海面 陽村里 李 福 德

4. 沿革 및 事蹟

時代未詳의 土石混築으로된 테피식 山城이다. 그러나 城內에서 수집된 土器片이나 주위에 있는 伽倻時代의 內山里, 陽村里古墳群을 미루어 보아 이 城도 當時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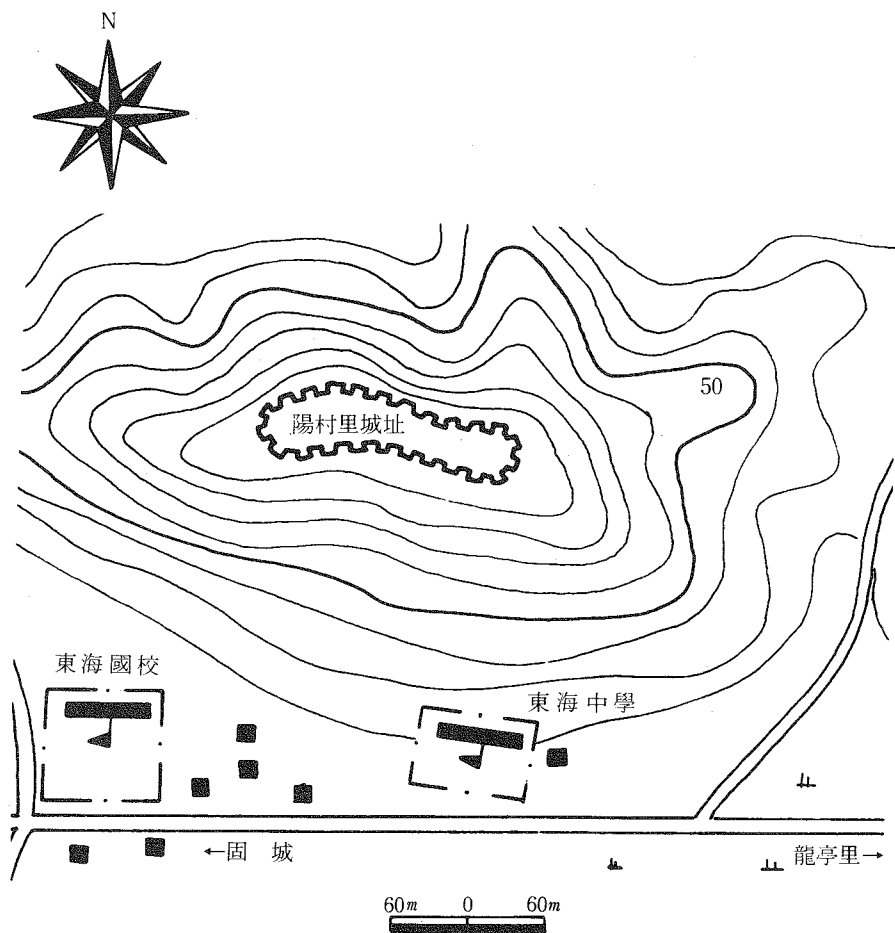
5. 遺蹟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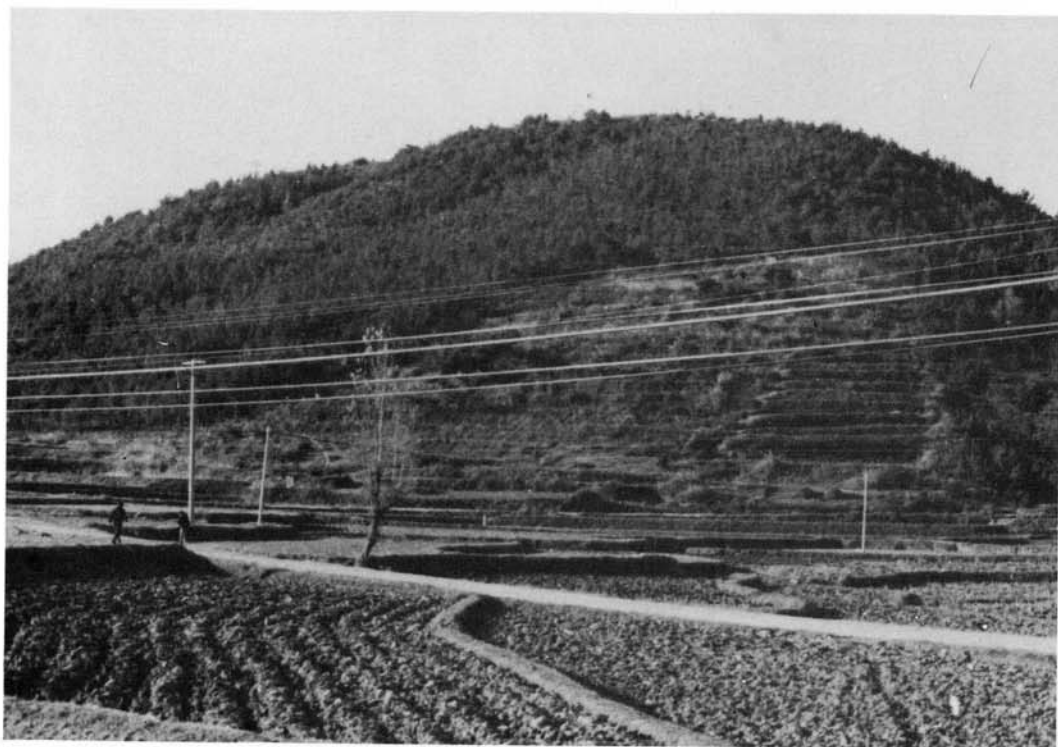
固城의 東쪽 끝에 位置하면서 三面이 바다로 둘러쌓인 半島의 入口部分에 해당하는 地形을 갖고 있다. 즉 북쪽은 堂項浦灣, 동쪽은 鎭海灣, 남쪽은 巨濟灣에 접하는 南海岸의 요충지에 位置하고 있는 셈이다. 城은 요충지에 野山(城山 표고 113m) 頂上部位를 城內로 하고 9分稜線上에 土石으로 內托되게 築造하였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았을 뿐 外形上의 特徵은 알아볼 수 없다. 地表上에 나타난 城의 形態는 西에서 東으로 半月形처럼 약간 길게 築造되고 入口는 남쪽 계곡에 配置하고 있으며 現在 城內外에는 松林을 비롯한 雜木이 우거져 있고 부분적으로는 잔디와 石築이 露出된 곳도 있다. 이 城址의 南쪽 계곡에는 陽村部落과 東海中學校가 있고 支石墓도 4~5基가 있으며 東쪽으로 內山里 古墳群이 近接 配置되어 있는 등 城址주위는 古今을 通하여 人間活動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現存하는 城壁의 둘레는 약300m 정도가 되며, 外形에 나타난 構造上으로는 馬岩面 禾山里 城址, 三山面 大篤里 城址와 同一한 性格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6. 調査者 意見

内山里古墳群, 陽村里古墳群과 더불어 伽倻史 研究에 貴重な 資料가 될 遺蹟이라고 생각된다. 上記 古墳과 함께 綜合的인 調査(推定所要豫算 3,000만원)의 必要性을 느낀다.

7. 略 圖





동쪽에서 바라본 성지 원경



남쪽 내부 전경 1



서쪽 내부 전경 2

固城郡陽村里古墳群

1. 時 代

伽倻時代

2. 所 在 地

慶尙南道 固城郡 東海面 陽村里 128 - 1

3. 所有者 住所・姓名

國 有

4. 管理者 住所・姓名

東海面 大谷里 南村 684 정하갑

5. 沿革 및 事蹟

中型封土를 가진 伽倻時代의 古墳群이라고 생각된다. 隣接한 内山里 古墳群과 同時代의 것이다. 大部分 日本人에 의해 盜掘되었으며 주위에 흩어진 土器片에 의하면 伽倻中期에 屬하는 古墳群으로 추측되고 있다.

6. 遺蹟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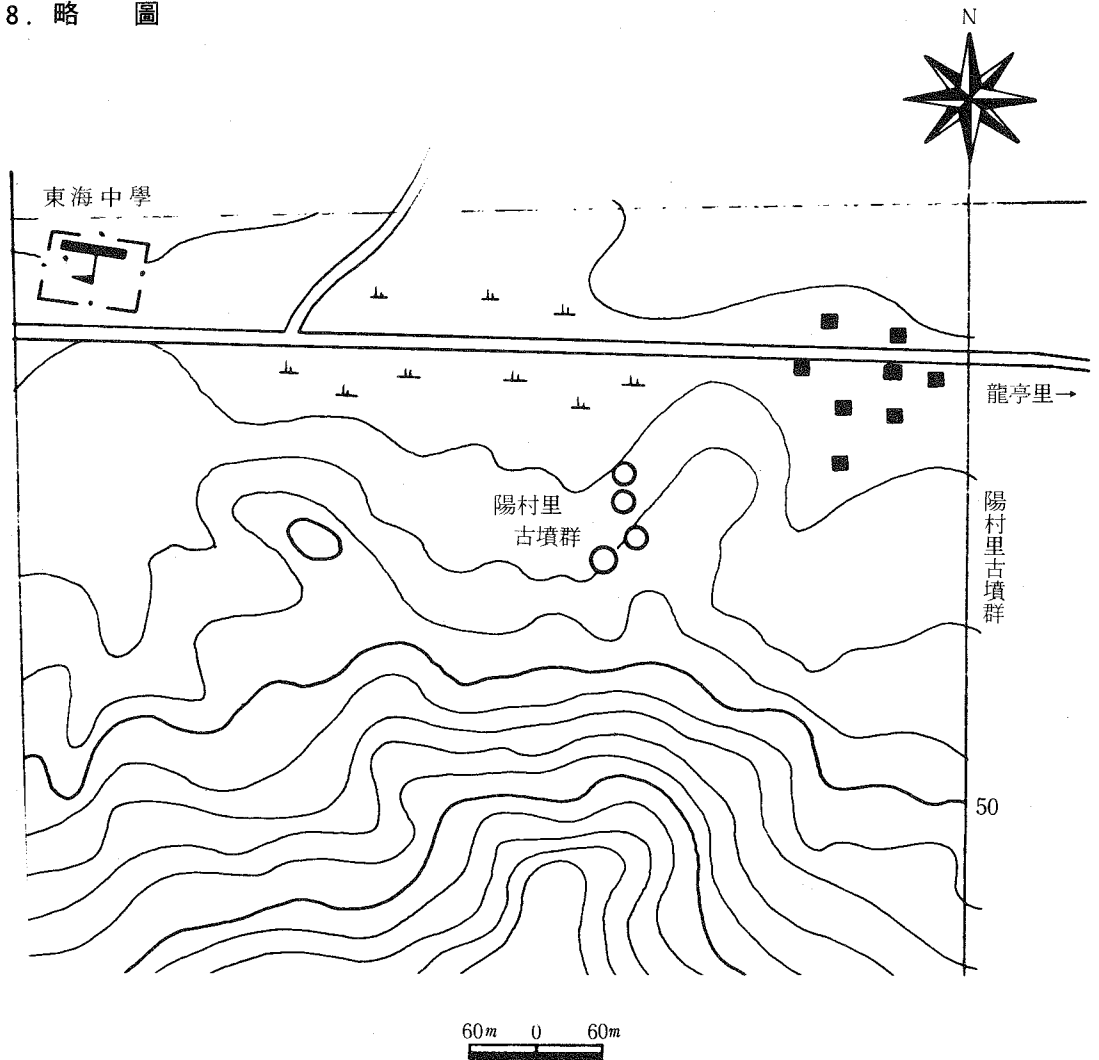
南海岸의 좁은 海岸平野를 中心으로 그 주위 野山기슭에 分布되어 있는 셈인데 事實 北쪽에 隣接한 内山里古墳群과 當時는 連結되어져 있었으나, 後에 中間에 田畠이 開墾되고 道路가 開設되면서 南北으로 分離되어 別個의 古墳群처럼 보이고 있다. 陽村里古墳群은 解放前만 해도 數十基에 달하는 大小古墳이 密集해서 分布되어 있었으나, 그 후 주위가 대부분 田畠으로 開墾되면서 破壞시켜 버리고 現在는 3~4基가 確認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他古墳群에 비해서 封土가 낮은 民墓形式의 것이 많이 分布하고 있었다는 現地 住民들의 傳言을 參考한다면 아직도 地下에 小型墳이 다소 埋藏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現存 確認 가능한 3~4基의 古墳은 直徑10m 内外의 中型에 屬하는 것으로 封土 頂上部에 盜掘痕이 있으나 遺構의 特徵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 古墳群의 外型上에 나타난 特徵을 例로 든다면 固城 松鶴洞古墳群과 같이 大型封墳을 갖지 않으면서

野山頂上部位보다 기슭의 平地에다 古墳을 配置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封土內의 遺構는 單槨式의 豎穴式 古墳이 아닌가 싶다.

7. 調査者 意見

内山里古墳群과 더불어 標本調査(推定所要豫算 2,000만원)를 實施하고 계속 補修 復元함이 可할 것으로 思料됨.

8. 略 圖





내산리 고분군에서 본 원경



고분군 근경 1



고분군 근경 2



고분군 근경 3

固城内山里古墳群

1. 時 代

伽倻時代

2. 所 在 地

慶尙南道 固城郡 東海面 内山里 188-10

3. 所有者 住所・姓名

國 有

4. 管理者 住所・姓名

固 城 郡

5. 沿革 및 事蹟

비교적 大型墳에 屬하는 古墳 20餘基가 城山の 南쪽 기슭에 分布하고 있다. 대부분 過去 日本人에 의해 盜掘되었으나 封土의 痕迹이 뚜렷하며, 주위에서 蒐集된 土器片의 特徵은 伽倻地域의 古墳에서 出土되는 遺物과 同一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隣接한 陽村里古墳群과는 그 築造時期나 特徵이 같으며 分布地域도 過去에는 함께 連結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6. 遺蹟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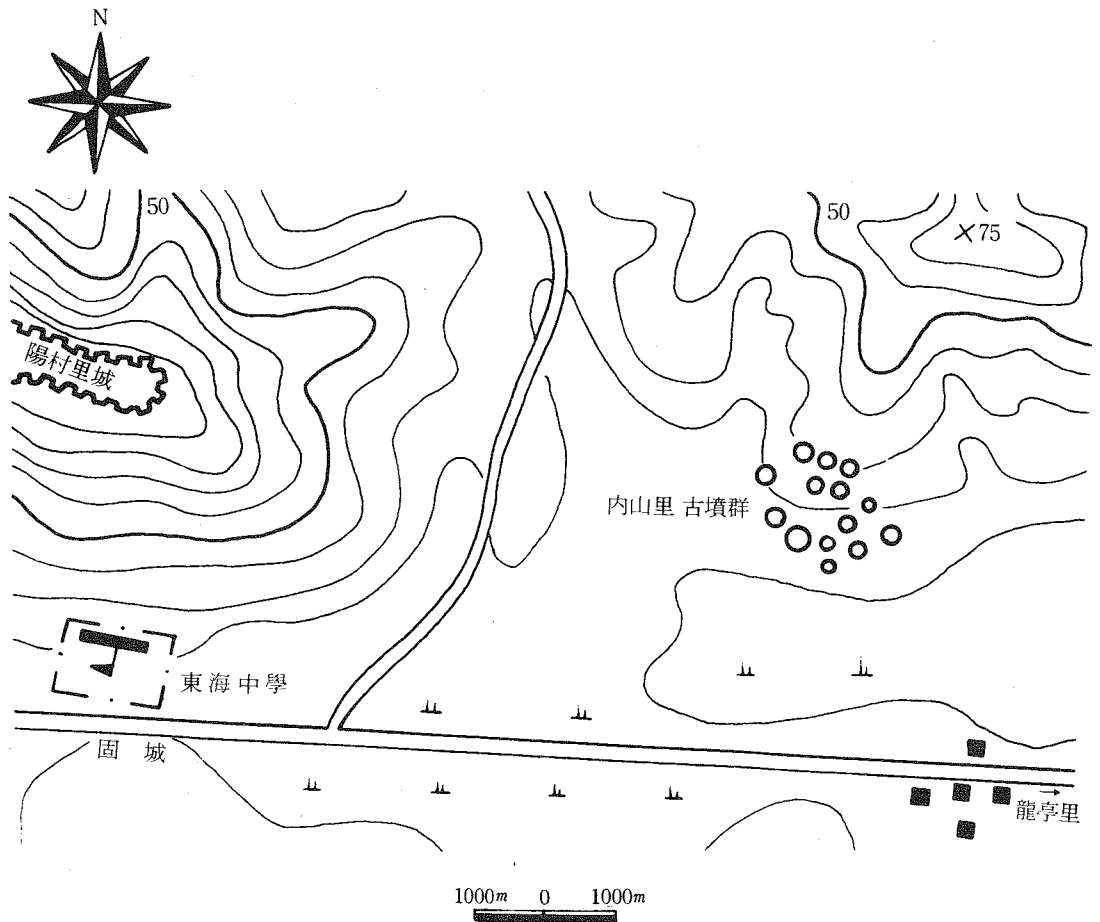
現在 古墳地域의 大部分이 田畝으로 變해 버리고 남은 古墳은 田畝사이와 野山에 封墳이 큰 것만 남아있다. 田畝의 開墾前에는 100餘基가 넘는 古墳들이 分布하고 있었으나 盜掘되어 封墳이 낮아지면 그 위를 다시 田畝으로 개간하여 오늘날과 같은 現狀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한다. 이 地域에 殘存하고 있는 古墳들도 대부분 頂上部位는 盜掘痕과 소나무로 덮여있고 주위는 隣接한 田畝에서 점차 파들어가고 있는 實情이며 어떤 곳은 石槨이 露出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古墳群은 陽村里古墳과 마찬가지로 墳墓가 位置하는 곳이 野山頂上이 아닌 城山기슭의 平地와 같이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는 곳이며 封土도 直徑 15~20m에 가까운 大型墳이라는 것과 大部分의 伽倻古墳이 大型일수록 넓은 平野를 낀 野山에 많이 分布되어 있는 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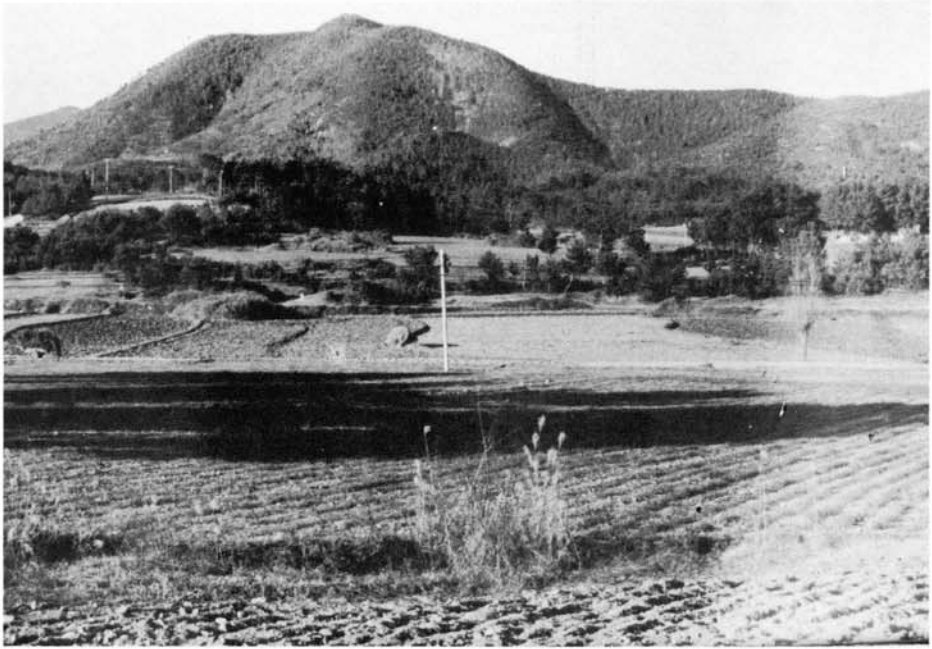
비해 이곳은 南海岸의 좁은 平野地帶인데 이렇게 큰 古墳이 位置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古墳의 内部構造는 確實하지 않으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豎穴式 石槨墳에 該當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7. 調査者 意見

앞으로 陽村里古墳群과 함께 標本調査(推定所要豫算 2,000만원)를 實施하고 封土復原 및 周圍 淨化事業이 必要하다고 생각됨.

8. 略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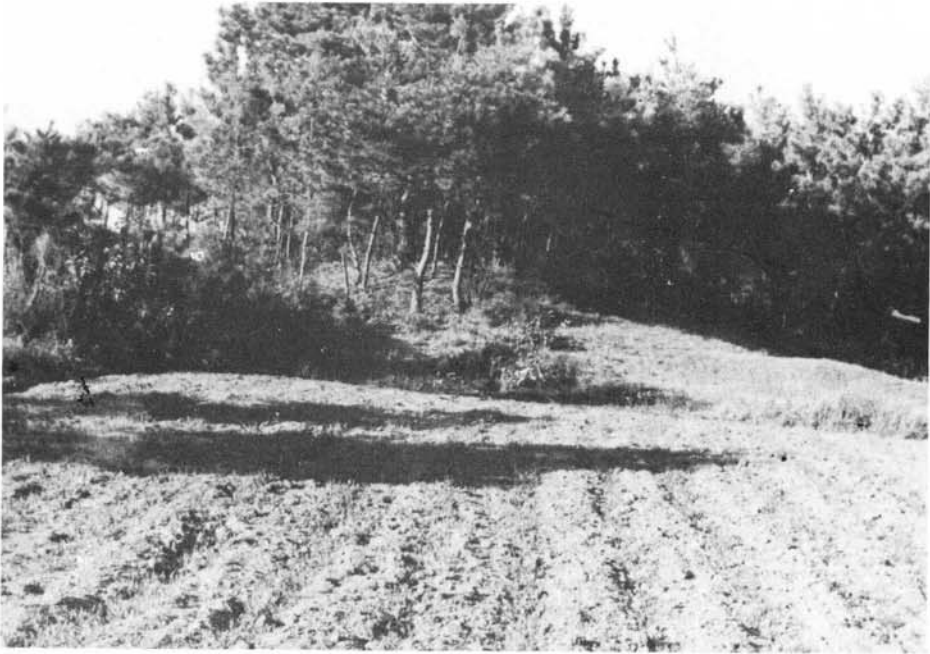




양촌리 고분군에서 본 원경



고분군 근경 1



고분군 근경 2



고분군 근경 3

固城巨山里山城

1. 時 代

2. 所 在 地

慶尚南道 固城郡 巨流面 巨山里

3. 所有者 住所・姓名

國 有

4. 管理者 住所・姓名

固 城 郡

5. 沿革 및 事蹟

이 城은 小伽倻때 新羅軍의 侵入을 막기 위해 小伽倻에서 築造한 山城이라고 傳하여 오고 있으나 確實하지 않으며 城內에서도 當代의 것이라고 證明할 수 있는 遺物片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城이 位置한 巨流山이 海拔571m 로 固城郡內와 南海岸의 大部分을 觀望할 수 있는 重要한 곳에 있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6. 遺蹟現況

現 固城郡內에서는 가장 높은 巨流山의 西斜面을 利用하여 固城邑을 向해 頂上部位에서 시작해 8分稜線에 이르기까지 蛇形으로 築造한 石城이다. 石築은 대부분 무너졌고 北쪽에 일부 남아있는 것은 內托과 內外夾築法을 地形에 따라 併用하였는데 內外表面의 城壁은 사람머리보다 약간 크게 長方形으로 治石하여 整然하게 쌓아올렸고 積心은 自然 塊石을 使用하였다. 그러나 原狀을 가진 곳은 5m도 안되며 높이는 2m 정도였고 나머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狀態였는데, 둘레는 약 1.5km정도였다. 城의 構造는 破損이 甚해서 確認할 수 없었는데 西쪽 계곡에 城門을 갖고 북쪽 稜線과 西쪽 城內에 建物 5~6棟을 配置한 듯 싶었다. 現在 北쪽 稜線의 建物址는 헬機場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時代未詳의 平互片이 흩어져 있었다. 이 城이 주로 巨流山의 西斜面을 利用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南쪽의 巨濟灣과

北쪽의 堂項浦灣을 견재하기 위하여 築造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본디의 目的이 對新羅라기 보다는 對倭寇를 위해 築造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7. 傳 說

※ 巨流山에 대한 傳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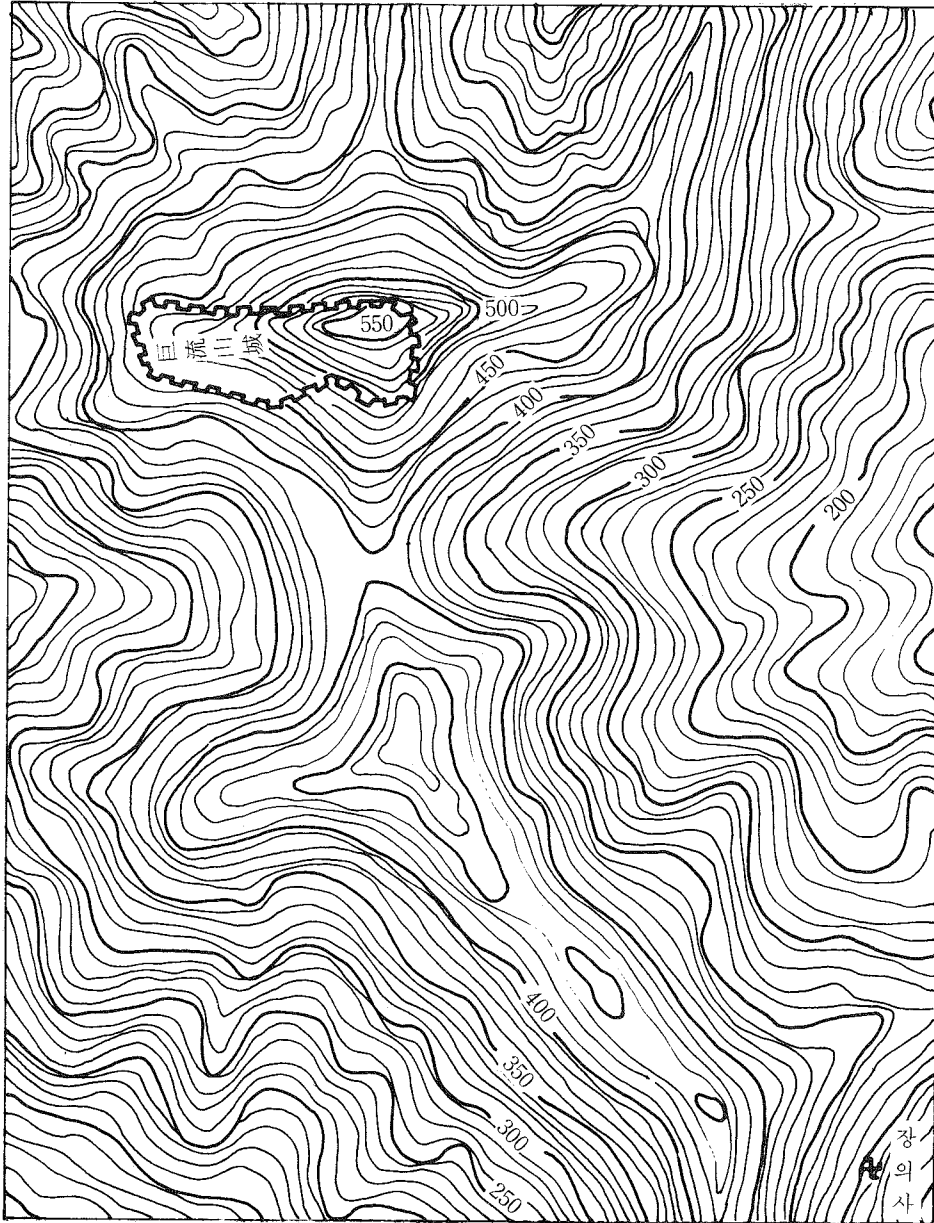
이 山의 이름이 세번이나 바뀌어져 小伽倻 때에는 太朝山, 朝鮮朝에는 巨俠山, 朝鮮末에는 巨流山이라고 하는데 巨流山이라고 한 것은 固城邑에 사는 어느집 處女가 아침 일찍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우연히 부엌을 나오게 되었다. 그때 문득 山을 바라보니 이상하게 山이 차츰차츰 東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서 이 處女는 신기한 나머지 큰 소리로 산이 걸어간다고 외쳤다. 그랬더니 山이 걸어가다가 우뚝 섰으므로 山名을 巨流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固城郡 小伽倻의 뿌리, 1983 參照)

8. 調査者 意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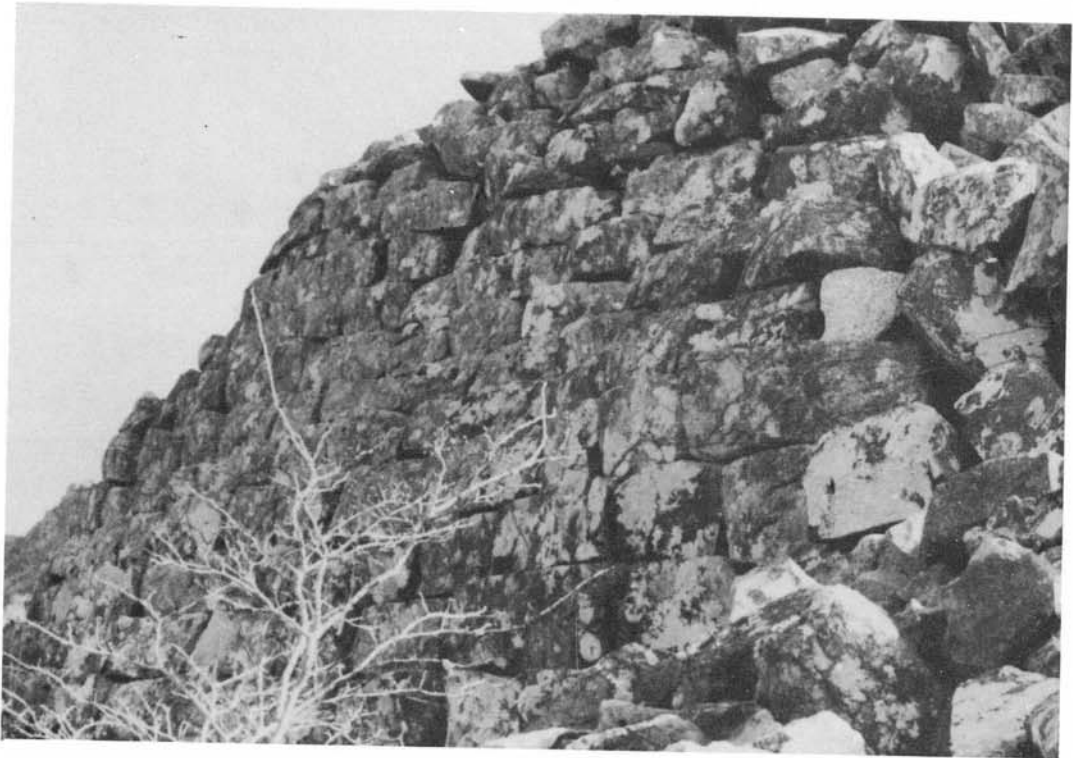
破損이 甚해서 復原이 不可能하나 調査를 必要로 한다면 建物址와 門址정도이며 時期的으로는 高麗以後의 城이 아닌가 싶다.

※ 이 巨山里山城은 事實上 巨流山城인데 巨山里까지 連結되었기 때문에 分離시킨 것 같으나 巨流山城과 內容이 같은 것이므로 本 “巨山里山城”은 目錄에서 削除 處理되어야 하겠음.

9. 畧圖



140 m 0 140 m



북쪽 성벽 근경 1



성벽 무너진 상태



북쪽 성벽 근경 2

固城巨流山城

1. 時 代
未 詳

2. 所 在 地
慶尚南道 固城郡 巨流面 佳麗里 山80

3. 所有者 住所・姓名
國 有

4. 管理者 住所・姓名
固 城 郡

5. 沿革 및 事蹟

이 城은 小伽倻때 新羅軍의 侵入을 막기 위해 小伽倻에서 築造한 山城이라고 傳하여 오고 있으나 確實하지 않으며 城內에서도 當代의 것이라고 證明할 수 있는 遺物片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城이 位置한 巨流山이 海拔 571m 로 固城郡內와 南海岸의 大部分을 觀望할 수 있는 重要한 곳에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6. 遺蹟現況

現 固城郡內에서는 가장 높은 巨流山의 西斜面을 利用하여 固城邑을 向해 頂上 部位에서 시작해 8分稜線에 이르기까지 蛇形으로 築造한 石城이다. 石築은 대부분 무너졌고, 北쪽의 일부 남아있는 곳은 內托과 內外夾築法을 地形에 따라 併用하였는데 內外 表面의 城壁은 사람 머리보다 약간 크게 長方形으로 治石하여 整然하게 쌓아 올렸고 積心은 自然 塊石을 使用하였다. 그러나 原狀을 가진 곳은 5m 도 안되며 높이는 2m 정도였고 나머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狀態였는데 둘레는 약1.5 km정도였다. 城의 構造는 破損이 심해서 確認할 수 없었으나 西쪽 계곡에 城門을 갖고 北쪽 稜線과 西쪽 城內에 建物 5~6棟을 配置한 듯 싶었다. 現在 北쪽 稜線의 建物址는 헬機場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時代未詳의 平瓦片이 흩어져 있었다. 이 城이 주로 巨流山의 西斜面을 利用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南쪽의 巨濟灣과 北

쪽의 堂項浦灣을 견재하기 위해 築造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본디의 目的이 對新羅라기 보다는 對倭寇를 위해 築造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7. 傳 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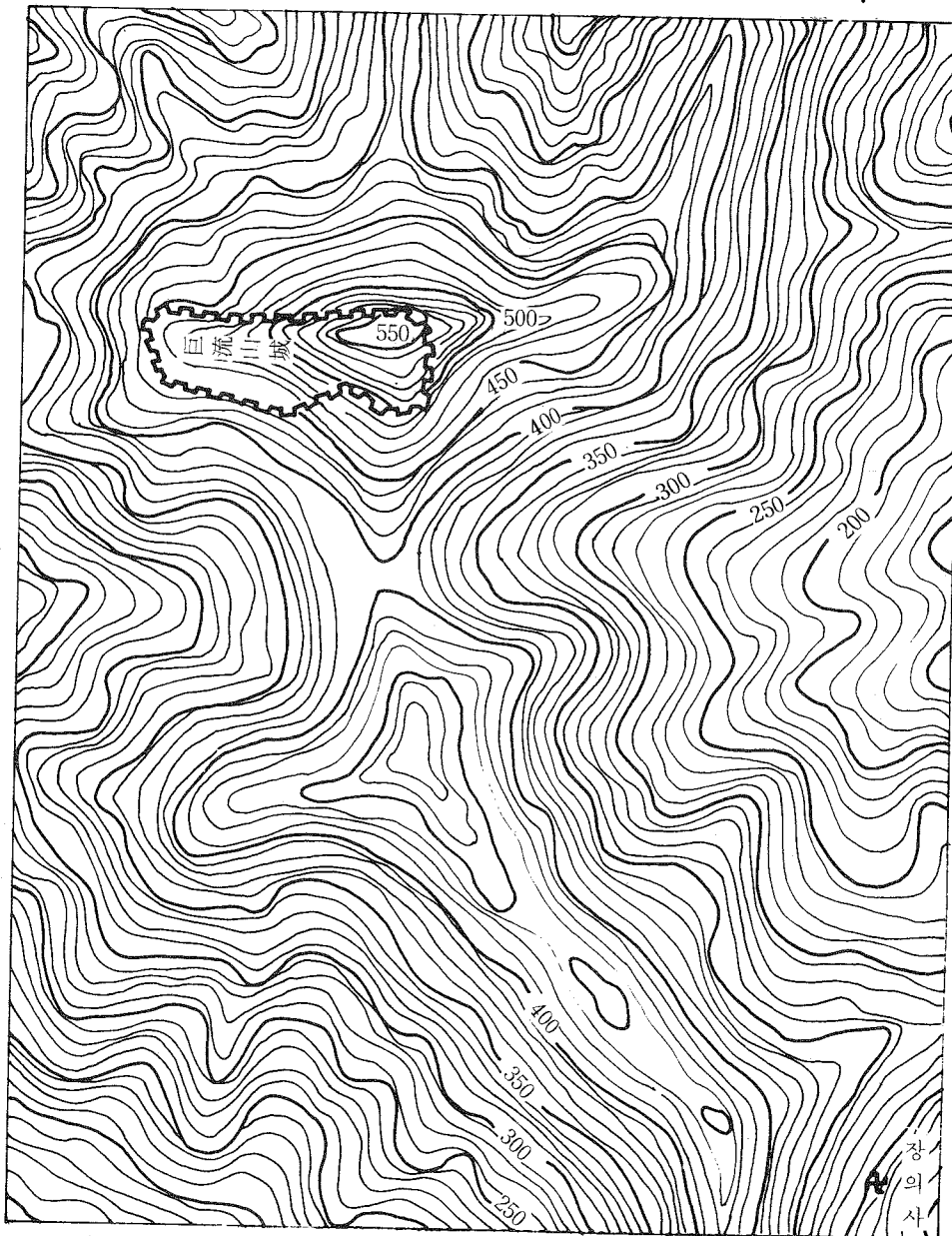
※ 巨流山에 대한 傳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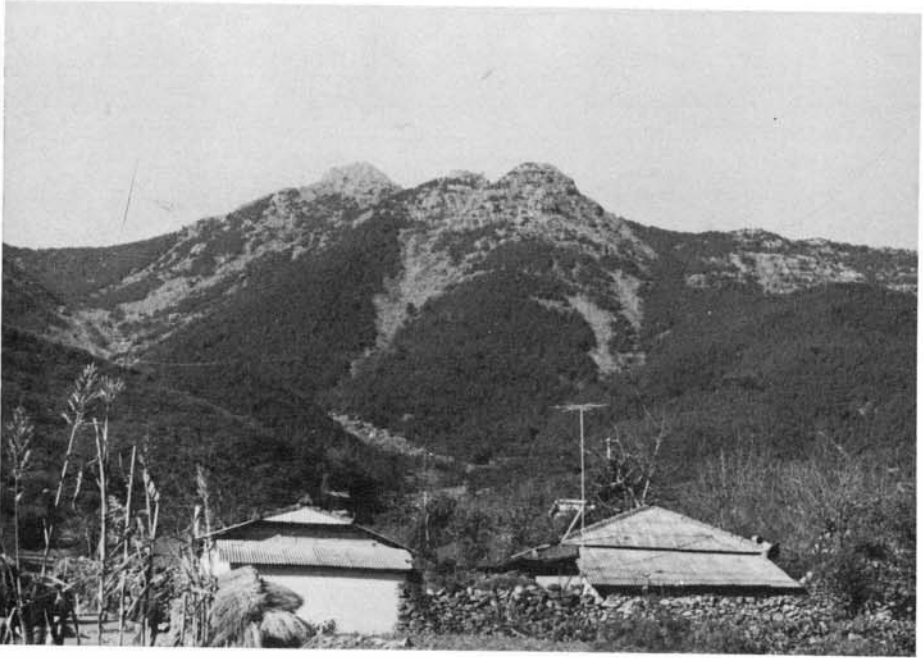
이 山의 이름이 세번이나 바뀌어져 小伽倻때에는 太朝山, 朝鮮朝에는 巨夷山, 朝鮮末에는 巨流山이라고 하는데 巨流山이라고한 것은 固城邑內에 사는 어느집 處女가 아침 일찍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우연히 부엌을 나오게 되었다. 그때 문득 山을 바라보니 이상하게 山이 차츰차츰 東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서 이 處女는 신기한 나머지 큰소리로 山이 걸어간다고 외쳤다. 그랬더니 산이 걸어가다가 우뚝 섰으므로 山名을 巨流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固城郡 小伽倻의 뿌리. 1983 參照)

8. 調査者 意見

破損이 甚해서 復原이 不可能하나 調査(推定所要豫算5,000만원)를 必要로 한다면 建物址와 門址정도이며 時期的으로는 高麗以後의 城이 아닌가 싶다.

9. 略圖





동해면에서 바라본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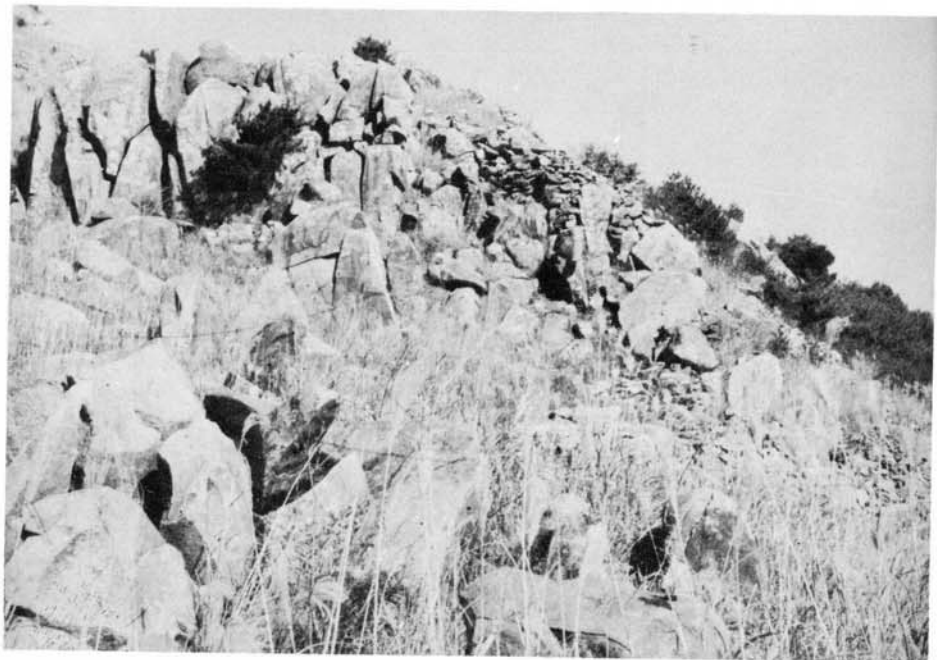
정상에서 바라본 고성읍



남쪽 성벽 흔적 1



남쪽 성벽 흔적 2



정상부의 성벽 전경



정상부의 성벽 근경



성벽 근경 1



성벽 근경 2

固城松鶴洞第2古墳群

1. 時 代

伽倻時代

2. 所 在 地

慶尙南道 固城郡 固城邑 松鶴洞 238의 102, 103 (第1號), 30의 1 (第2號), 30의 29, 27 (第3號), 460 (第4號), 464의 2 (第5, 6, 7號)

3. 所有者 住所·姓名

固城女子中學校 (第2號墳), 정정수 (第1號), 조정제·김상단 (第3號)

4. 管理者 住所·姓名

조연희 (第4號), 김이택 (第5, 6, 7號)

5. 沿革 및 事蹟

松鶴洞古墳群의 동쪽에 連結되어 있는 7基의 伽倻古墳이다. 비교적 封墳이 큰 것으로 모두 破損되어 原形을 알아보는 힘들 정도이나 그 性格은 松鶴洞 古墳群과 同一하다고 생각된다.

6. 遺蹟現況

現在 松鶴洞 民家사이와 固城女子中學校內에 分布하고 있는데 모두 日帝時代에 盜掘 당하고 그 頂上部位는 대부분 밭으로 耕作되고 있다. 이 古墳群이 밭으로 변하게 된 것은 盜掘 當時 圓形封土 頂上部位부터 절개하여 내려오면서 파들어가 遺物을 採集하였기 때문에 後日에 이를 평평하게 메꾸어서 곧장 耕作地로 使用한 것이다. 주위에서 蒐集된 土器片에 의하면 松鶴洞古墳群과 함께 伽倻時代 後半에 形成된 古墳으로 추정되며 現存하는 個別的인 規模는 대략 다음과 같다.

第1號墳：直徑 26.6m, 높이 2.0m 第5古墳：直徑 23.3m, 높이 2.5m

第2號墳： " 20.1m, " 1.1m 第6號墳： " 13.7m, " 1.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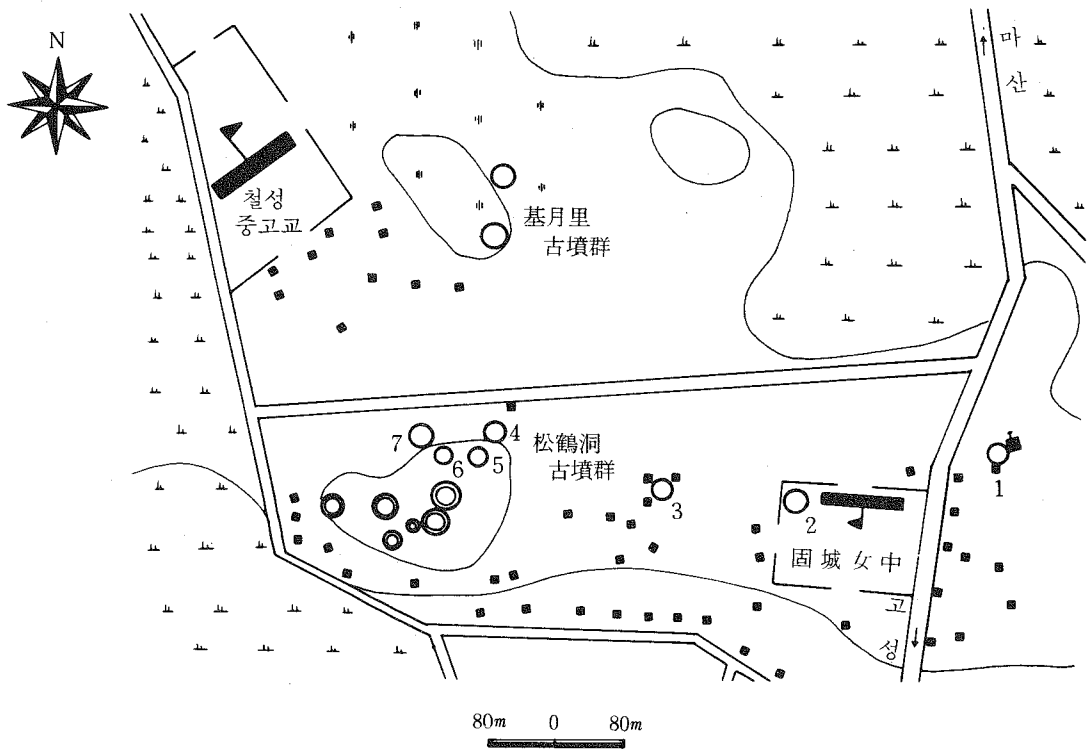
第3號墳： " 20.7m, " 1.1m 第7號墳： " 10.2m, " 0.9m

第4號墳： " 14.2m, " 1.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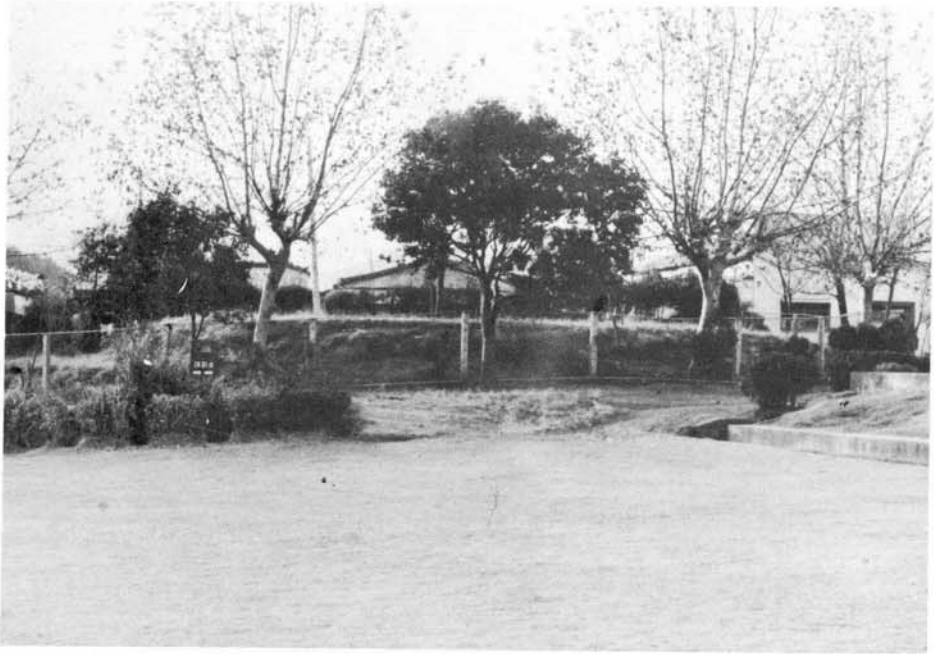
7. 調査者 意見

이미 盜掘된 것이나 發掘 調査(推定所要豫算 1 億 원) 하여 그 性格을 把握한 後 一部分은 個人이 土地를 利用할 수 있도록 文化財 地域으로부터 解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8. 略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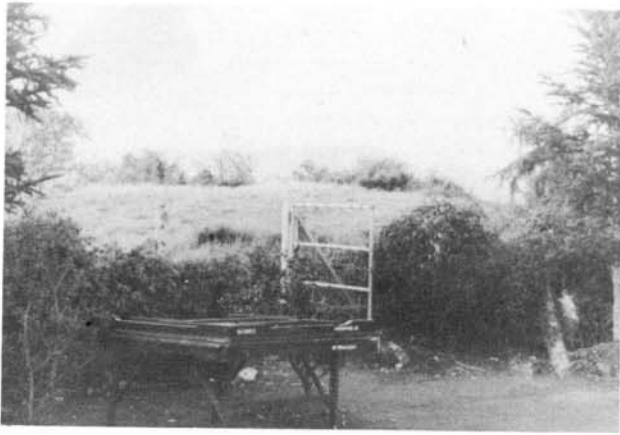
※ 松鶴洞古墳中 ○표는 第 2 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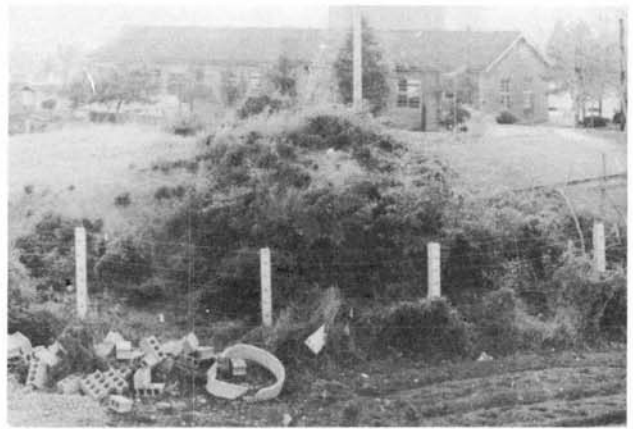
고성여중 운동장의 고분



마을 입구의 고분



성결교회 입구의 고분 1



성결교회 입구의 고분 2



송학동 마을의 고분

傳首路王陵

1. 時 代

先史時代

2. 所 在 地

慶尚南道 固城郡 下二面 石芝里

3. 所有者 住所·姓名

孫氏宗中(宗沓)

4. 管理者 住所·姓名

石芝里 南山部落 孫 英 鎬

5. 沿革 및 事蹟

青銅器時代의 墓制인 支石墓의 下部 構造가 아니면 箱形石棺墓로 추정되는 石造 遺構가 開墾作業中 논 가운데서 發見되어 잘못 傳해져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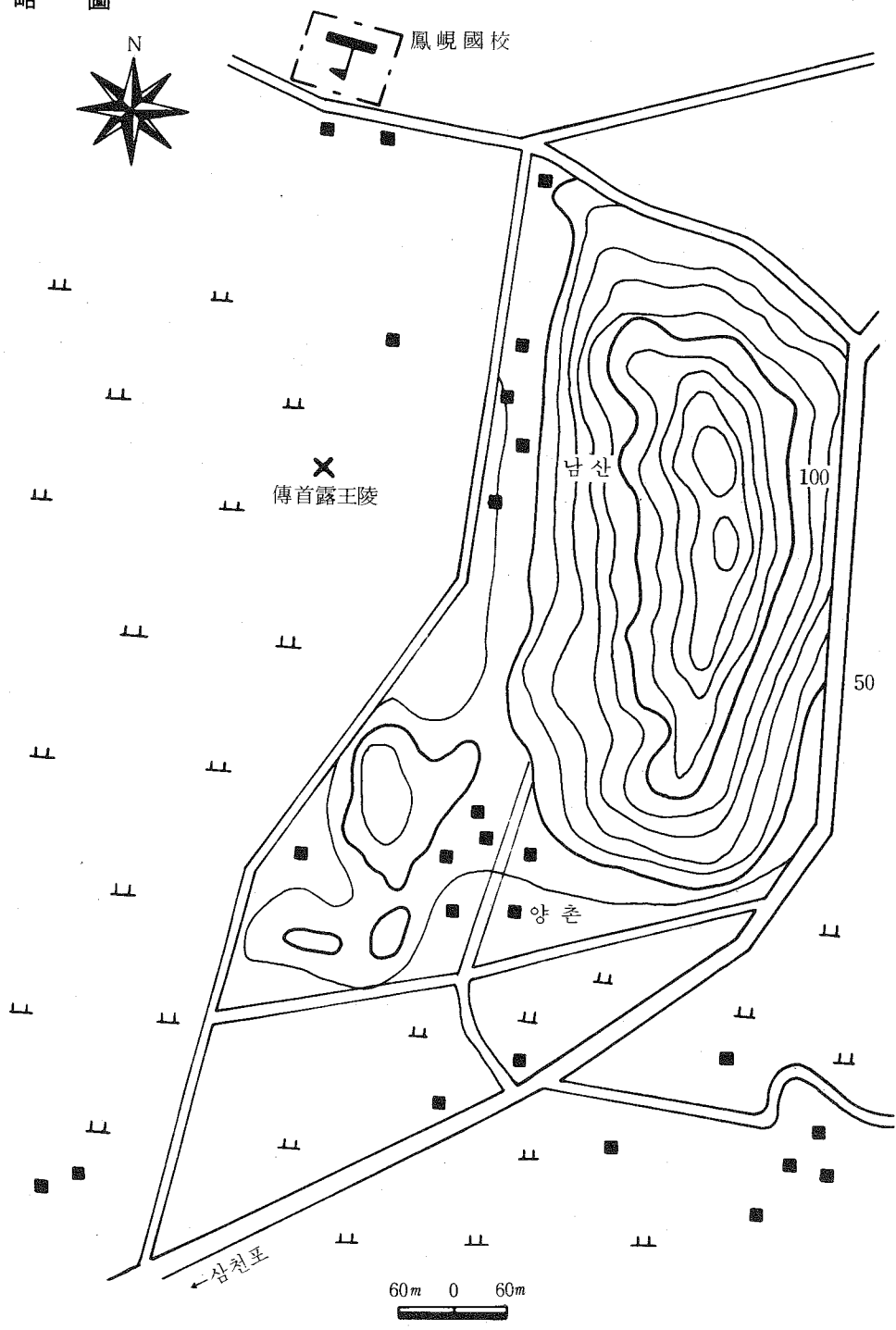
6. 遺蹟現況

地名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石芝里 一帶는 青銅器時代의 支石墓가 많이 分布되어 있다. 王陵이 묻혀있다는 논 主人의 이야기에 따르면 過去 이곳이 밭이었는데, 몇년 前에 논으로 轉換하기 위해 客土作業을 하던중 箱形石棺墓의 蓋石이 줄지어 나타나 4~5基가 있었고 그 중에는 瓦片, 土器片도 出土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위 논둑에 큰 바위가(支石墓上石) 있었는데 일부러 깨어서 논둑 쌓는데 使用하였다고 하며 100m 北쪽에 아직도 碁盤式 支石墓 1基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보아 이 一帶의 논가운데는 先史時代의 石棺墓 또는 支石墓가 分布하였던 곳으로 伽倻王陵과는 無關함을 알 수 있다. 이 一帶의 支石墓를 石芝里 支石墓라 하여 慶南地方文化財 記念物 38號로 指定되어 있다.

7. 調査者 意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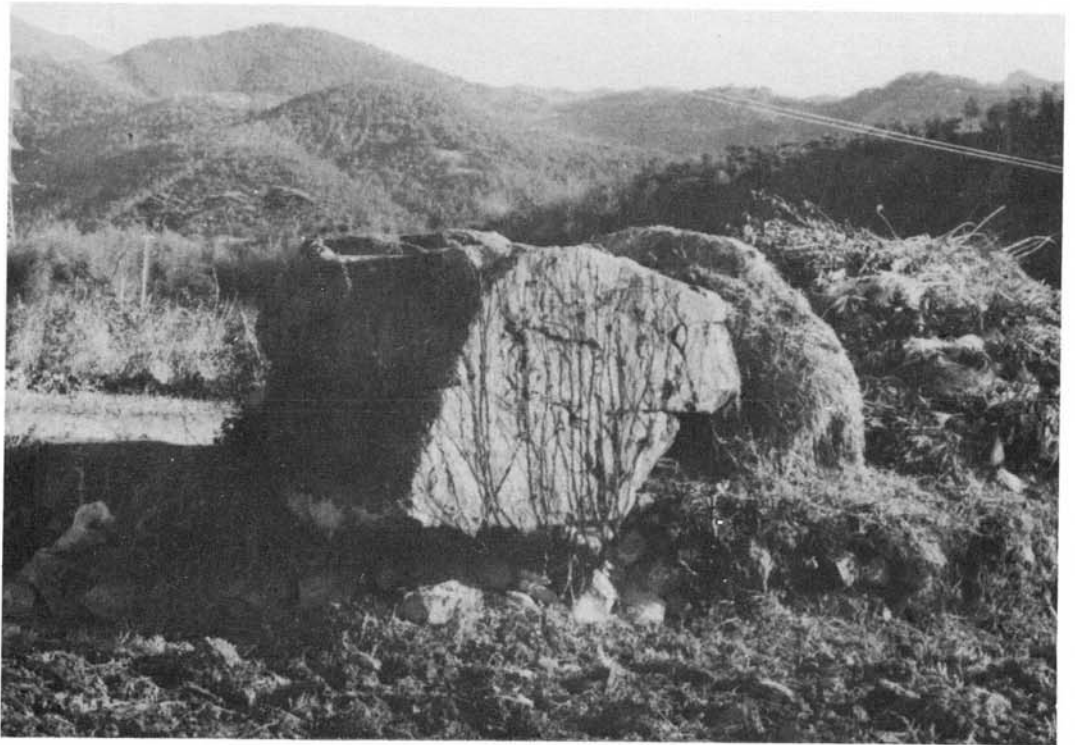
伽倻와는 無關하지만 機會가 주어진다면 精密調査(推定所要豫算 1,000만원)를 實施하여 遺構의 性格을 밝혀둘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됨.

8. 略 圖





유구 매장지점



마을 입구의 지석묘

調查者 沈 奉 謹
 李 容 玆
 朴 文 國
 鄭 在 勳
 閔 晶 美

伽耶文化圈遺蹟精密調查報告書

1984年 12月 10日 印刷

1984年 12月 15日 發行

編輯：東亞大學校 博物館
發行：世 明 出 版 社
印刷：세 명 출판사
☎ 242-1361~5

〈非 賣 品〉